주체사상원리해설 4

자주와 번영의 문은 선군으로



자주와 번영의 문은 선군으로

조선・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3(2014)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김 정 은

머 리 글

오늘 지구상에는 정견과 신앙, 사회제도가 다르고 각이한 발전수준을 가진 200여개의 나라가 있다.

자주와 번영은 정권과 제도, 신앙과 민족의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인민들, 인류의 모든 세대를 관통하고있는 한결같은 념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주와 번영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향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자주와 번영을 이룩할데 대한 리해는 나라와 사람마다 같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령토가 크고 인구가 많으면 륭성번영을 쉽게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와 기술을 부강발전을 특징짓는 징표라고 보고있다.

령토가 크고 인구가 많으며 경제와 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을 놓고 보아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 사회건설에서 우여곡절을 겪고있는 실태를 적지 않게 목격할수 있다.

자주적발전을 이룩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강번영의 담보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현시기 실천적인 문제이기전에 인류의 존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선군사상에서 찾

으려고 한다.

선군의 길을 따라 자주와 번영의 문을 열어보기로 하자.

차 례

《나는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전례없이 높아졌습니다.》

김 정 일

1. 총대와 자주성

자주성은 사회적인간,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사는것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것만큼 자주성을 잃어버린 나라를 나라라고 할수는 없다.

오늘의 세계를 놓고 보면 랭전시기보다 더 복잡하고 소란스럽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과 번영이 저애되고있는 등국제사회에서는 여러가지 사태들이 벌어지고있다.

강도적인 힘의 지배론에 기초하여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간섭과 압력이 뻐젓이 감행되고 세계평화와 안전이 여지없이 파괴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바로 강력한 총대에 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힘을 동반하지 않는 정의는 무효이며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힘은 횡포하다》고 했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기본은 총대이다. 결국 총대와 자주성, 자주성과 총대는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선군사상은 총대와 자주성을 하나로 결합시킨 새로운

혁명원리, 선군혁명원리를 밝혀주며 이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물현상에는 그의 근본으로 되는 리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리이다. 사람은 사물현상의 근본리치를 알고 그로부터 출발하여야 모든 사고와 실천을 합리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선군으로 자주와 번영의 문을 열자면 무엇보다도 그 근본리치로 되는 선군혁명원리에 대하여 옳바로 리해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첫 공정으로 되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선군혁명원리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1) 혁명에서 기본은 총대

선군혁명원리는 총대와 혁명의 호상관계를 밝힌 총대철학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에 기초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투쟁이다.

그 발생발전과정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러나 이 요인들중에서 기본은 총대이다. 그것은 혁명이 제국주

의를 비롯한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힘의 대결을 동반하기때문이다.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된다.

혁명은 착취계급, 착취제도를 때려엎고 새 제도,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착취계급, 지배계급은 절대로 자기의 정치적지배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며 반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유린말살한다.

과거의 노예소유자사회와 봉건사회를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군대와 같은 방대한 폭압기구들이 설치되여있었는데 그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았다. 낡은 사회제도의 개조를 요구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자는데 있었다.

착취계급과 낡은 사회제도를 반대하여 들고일어났다가 무참하게 진압당한 B. C. 1 세기경 고대로마의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이나 17 세기 중엽 로씨야의 쓰쩨빤 라진농민전쟁 그리고 19 세기말 조선의 갑오농민전쟁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총대에 의하여 혁명이 개척된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가 확증해주었다.

조선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개척되였다.

1905 년 강도적인 《을사 5 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한 일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악랄하게 진압하였다.

1919 년에 일어난 3.1 인민봉기를 놓고 보아도 일제에 의

하여 10 여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되였으며 4만 6 700 명에 달하는 애국적인민들이 체포투옥되였다.

총칼이나 대포를 들고나오는 적에게 청원이나 파업, 붓이나 말로 맞서 싸워서는 결코 승리할수 없다. 무장한 적을 때려부시는 가장 옳바른 방법은 무장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운동초기에 아버님으로부터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시였다. 이 두자루의 권총에는 무장한 적과는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유산에 담겨진 뜻을 깊이 새기시고 주체 15(1926)년 10월 17일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강령으로 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이후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무장한 적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며 주체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총대에 있다는 총대철학이 담겨져있었다.

총대철학을 신념으로 간직했기에 조선인민은 당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였고 아시아의 맹주로 날뛰던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조선혁명뿐아니라 로씨야, 중국, 꾸바 등 여러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도 총대로 개척한 투쟁의 결과였다.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

무릇 혁명은 온갖 도전과 시련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렵고 간고한 투쟁이다. 혁명의 개척도 어렵지만 승리한 혁명을 자기의 궤도에서 탈선시키지 않고 곧바로 전진시키며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 또한 어렵고 복잡다단하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은 사회주의위업을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한다. 이런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자면 힘이 있어야 한다.

총대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을 보위하는데서 인민대중이 의거하는 가장 위력한 수단이다.

혁명이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되여나간다는것은 오늘의 조선의 현실이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신 이후 조선의 정세는 참으로 엄혹하였다.

《급변사태》, 《체제변화》에 대하여 떠들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련합하여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군사적침략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였다.

총칼을 들고 달려드는 원쑤에게서 《자비》와 《관용》을 바라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으며 적들은 오직 강위력한 힘으로 무자비하게 족쳐버려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대중시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원쑤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시였으며 선군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도록 하시였다.

주체 101(2012)년 1월 1일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첫 자욱을 찍으신 근위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치의 드팀도 없을 총대강화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시였다.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1(2012)년 3월초 적들과 항시적으로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판문점을 시찰하시고 이어 서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초도방어대를, 4월초에는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면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강화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 101(2012)년 1월부터 주체 102(2013)년 3월까지 수십여차례나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며 인민군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시였기에 오늘 조선은 위성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침략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총대를 강화하고 총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없다. 이것은 이전 쏘련의 70여년의 력사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력사의 갈피에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온 장구한 투쟁사에서 피로써 얻은 경험과 교훈, 귀중한 진리가 깊이 새겨져있다. 이전 쏘련의 유명한 작가였던 고리끼는 《과거의 것을 모르고서는 현재의 참된 뜻과 미래의 목적을 알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

다 알다싶이 1991년 12월 25일 모스크바 크레믈리의 상공에 나붓기던 붉은기가 내려졌다. 그리하여 근 70여년간 지구의 1/6에 존재하였던 쏘련, 인류력사상 첫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은 자기 존재를 끝마쳤다.

그 원인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설명할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총대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여있지 못한데 있었다.

이전 쏘련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하고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을 반대하여 진행한 정의의 조국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은것은 다름아닌 강력한 혁명의 총대를 틀어쥔 붉은군대가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이전 쏘련을 일떠세우고 파쑈침략자들을 쳐부시며 조국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붉은군대는 수정주의자들,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

하여 사상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자들에 의하여 군인들의 계급의식, 반제정신이 흐려지고 군인들속에 염전사상이 퍼졌으며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침습하여 군대의 혁명성과 전투력이 마비되게 되였다.

1991 년 8 월 쏘련지도부의 진보적인물들은 비상사태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부에 의거하여 붕괴되여가는 쏘련을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일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당시 명령을 받은 한 군고위장령은 자기 부대가 시내에 돌입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반사회주의세력에게 담보해주었다. 그런가 하면 명령을 받고 모스크바에 진입한 부대들은 자기의 임무를 줴버리고 사회주의배신자들의 편으로 돌아섰다. 결국 군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8 월사변은 3 일만에 실패로 끝나고말았으며 그해 11 월 6 일에는 쏘련공산당이 해체되고 12 월 25 일에는 끝내 쏘련이 무너지고말았다.

사상이 없는 총대, 녹이 쓴 총대는 세계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던 자기 조국이 해체되고 피땀으로 이룩한 모든것이 무너지는것을 막아낼수 없다는것이 8 월사변이 보여준 교훈이였다.

하기에 이 한심한 사태를 두고 《미국의 소리》방송까지도 1998 년 1 월 9 일 이렇게 평하였다.

《쏘련군은 자기 나라가 꺼꾸러지고 뒤이어 붉은군대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그 림종의 시각에도 술에 잔뜩 취해 비칠거리기만 하였다. 그것이 저들의 림종이라는것을 전혀 인식하

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은 중립만을 지키라는 고르바쵸브의 독술에 취하여 쏘련을 통채로 꺼꾸러뜨렸고 이제와서는 그들자신도 거지와 다름없는 신세로 되였다.》

성공과 실패가 뒤섞인 이전 쏘련의 70여년의 력사는 총대의 무게에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혁명의 승리는 총대의 승리이다. 총대를 틀어쥐고 강화해나갈때 혁명은 가장 옳바른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총대는 혁명이 성과적으로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완성될수 있게 하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2) 군대는 당, 국가, 인민

선군사상은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를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대이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는 바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당과 국가,

인민의 운명이 총대를 틀어쥔 혁명군대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을 밝혀 주고있는 원리이다.

군대가 당이라는것은 혁명군대에 의하여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책동에서 그 첫째과녁은 언제나 사회주의위업의 정치적향도자인 혁명적당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혁명의 전진운동을 멈춰세우고 말살하려고 혁명적당을 말살하고 그의 권위와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온갖 파괴모략행위를 일삼는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당의 존재와 권위를 굳건히 수호하는 위력한 무기는 혁명군대뿐이다.

군대가 없으면 당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는 말할것도 없고 하고싶은 말도 변변히 할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는 그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를 놓고보면 조선혁명만큼 어렵고 복잡한 혁명, 전인미답의 간고한 길을 헤쳐온 혁명은 찾아볼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분렬된 조건에서 진행된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연재해로 인한 겹쌓이는 난관을 극복하며 진행한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 그 간고함과

복잡함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아마 다른 나라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무너지고 천만번도 더 포기했을 고난과 시련의 련속이였다.

이처럼 엄혹한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이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로서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왔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심으로써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바치시여 부대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문제,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일일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인민군대에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것이 인민군대의 기본사명이며 투쟁전통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고무해주시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인민군군부대들과 구분대들을 수

많이 찾고 찾으시며 혁명무력건설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말부터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조선혁명은 총대의 기치높이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그 이후 인민군대는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서 수령옹위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강력한 혁명의 총대를 충실한 동지로 가지고있는 당만이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혁명을 끝까지 향도할수 있다는것은 조선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군대가 국가이라는것은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하여 유지된다는것이다.

국가정권을 쟁취하고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과 반동세력사이의 가장 치렬한 힘의 대결전이다. 반동세력은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며 스스로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

강력한 혁명무력이 없이는 반혁명의 필사적인 반항을 짓

부시고 정권을 쟁취할수도 고수할수도 없다.

군대를 틀어쥐지 못하면 정권을 잃게 된다는것은 칠레대통령이였던 알엔데의 경우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1970 년 9 월 4 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알엔데는 미제와 과두정치의 지배를 청산하고 칠레의 민족적자주권을 강화하며 광범한 근로대중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인 사회경제적개혁들을 실시하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지주들이 소유하고있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대농장제를 페지하였으며 미국독점체들이 거머쥐고있던 동광산을 비롯하여 주요 공장, 광산, 은행, 체신부문을 국유화하였다. 칠레에 설치되였던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들과 경제, 문화적침략기구를 철페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진보적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칠레에서 사회주의혁명의 불길이 타번지자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 《제 2 의 꾸바》가 생겨났다고 아우성을 치며 알엔데정권을 전복하는데 달라붙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특별자금 1 천만 US$를 즉시 지출하게 하고 5 천만 US$분의 무기들을 칠레에 반입하게 하였다. 반정부세력을 사촉하여 무기통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고 인민통일련합에 속하여있는 모든 당들의 산하기관들에서 소유하고있던 무기들을 전부 몰수하도록 하였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알엔데는 마땅히 승리한 혁명

의 전취물을 원쑤들로부터 지켜낼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경제개혁에만 몰두하면서 군대와 경찰을 틀어쥐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였다.

결국 1973 년 9 월 11 일 미국의 사촉하에 친미분자였던 륙군사령관 삐노체뜨가 일으킨 군사정변을 막아내지 못하고 원쑤들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였다.

당시 65 살이던 알옌데는 투항은 비겁한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직접 손에 자동총을 들고 대통령궁전에서 7 시간동안이나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되였다. 그때 만일 알옌데가 군대를 장악하고 그에 의거했더라면 미제의 간섭과 반동들의 군사정변기도를 저지파탄시켰을것이다.

혁명적인 정권의 탄생과 강화발전의 전과정이 철두철미 총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만큼 군대는 곧 국가라고 말할수 있다.

군대가 인민이라는것은 혁명군대가 있어야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혁명군대의 중요한 사명은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독단과 전횡, 강권행위가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강력한 군사력은 자주적인민의 첫째가는 징표로 된다.

미제에 의하여 나라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한 이라크인민의 실태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3년 3월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 이라크를 손쉽게 먹어버린 미제는 살인과 략탈을 일삼았다.

이라크를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종교적신앙을 모독하였으며 귀중한 문화재들을 수많이 략탈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수감자들을 발가벗기고 희롱하거나 구타하고 강간하는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행위들을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라크는 고대문화발상지의 하나로서 유구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다. 이라크의 량강류역(푸라트강과 디쥴라강이 합쳐지는 류역과 중부류역을 고대사람들은 량강류역 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다)은 고대문화가 창조된 곳중의 하나이다. 지난날 이라크사람들은 풍부한 원유자원을 밑천으로 물질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라크의 싸담 후쎄인과 군부는 미국과 맞설 배짱과 의지가 없는데로부터 만전쟁후 제국주의의 횡포한 요구에 계속 양보하면서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종당에는 미제의 침략에 나라가 먹히우고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노예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현실은 총대, 군사력이 약하면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고 경제적잠재력이 있다고 하여도 제국주의침략과 략탈의 희생물로, 현대판식민지노예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조선속담에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인민은 초상난 집의 거두지 않는 개보다도 못하다는 뜻으로서 억압과 착취, 수모와 학대를 받는 망국노의 비참한 처지와 운명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이다.

교훈적인 이 말을 이라크인민에게 차례진 식민지노예의 운명, 인간이하의 수치와 멸시, 모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페부로 느낄수 있다.

군대의 운명은 곧 당과 국가, 인민의 운명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수호하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권위와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입니다.》

김 정 일

2. 총대강화의 길

지금까지 선군혁명원리에 대하여 보았다.

선군혁명원리는 총대를 기본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근본리치를 밝혀주고있다.

일반적으로 원리는 과학이고 법칙이지만 그것은 결코 저절로 구현되는것이 아니다. 어떤 과학의 원리이든지 실천에 응용되자면 그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대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그에 맞는 옳바른 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되여나갈수 있다.

결국 자주성실현의 근본담보인 총대를 강화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선군사상은 선군혁명원리를 밝힌데 기초하여 이러한 리치에 맞게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고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혀주고있다.

그러면 선군사상이 밝혀주는 선군혁명원칙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1) 군사선행

군사를 선행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를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운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시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합니다.》

력사적으로 자주와 정의를 지키고 평화를 수호할데 대한 문제는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서 그에 대하여 많이 론의되여왔다. 그것은 착취계급에 의하여 강요된 침략과 전쟁으로 하여 세계적범위에서 오래동안 자주와 정의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심히 파괴당한것과 관련된다.

자료에 의하면 B.C.1496 년부터 A.D.1861 년까지의 기간에 지구상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한 것은 227 년간이고 3 130 년간은 전쟁을 하였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자주와 정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력사무대에 제국주의가 등장한 다음 더욱더 첨예한 문제로 나섰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피흘리는 정치》로, 《정치는 피흘리지 않는 전쟁》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국은 건국이래 20 세기초까지만 하여도 114 차례의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태평양도 아시아도 마땅히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처럼 미국의 소유로 되여야 하며 그곳의 토착주민들도 마땅히 메히꼬인들처럼 쫓겨나거나 인디안들처럼 박멸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침략과 전쟁의 원흉 미제가 떠벌인 말이였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전쟁이란 없어질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는 당을 창건하고 국가를 세우며 경제건설을 해야 하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혁명 그자체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군사만큼 선차적인 의의를 가질수는 없다.

조선에서는 군대를 먼저 창건하고 그 무력적담보밑에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온 군사선행의 원칙이 확고히 고수되였다.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의 현실적요구로부터 독창적으로 풀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 30일에 진행된 카륜회의에서 총대를 틀어쥐고 혁명을 할데 대한 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군대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였으며 당면하게는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적해방을 달성하며 나아가서 모든 계급적압박과 착취를 청산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무력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주체 23(1934)년에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되여 조선인민의 항일혁명투쟁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핵심적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무력에 의거하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다음에 당도 국가도 창건하시였다.

해방후에도 군사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시였다.

195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에 의거하여 미제와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신것은 인류력사에 새겨진 군사상의 기적이였다.

미제는 그때까지 10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강대한 적이였으며 청소한 공화국에 있어서 너무도 힘에 부친 상대였다. 미국에 비해 조선인민군은 정규무력으로 개편된지 겨우 2년남짓한 때였다. 하지만 조선인민은 언제나 총대를 앞세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령도가 있었기에 미제와 여러 추종국가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조선인민을 두고 부른 영웅적인민이라는 자랑스러운 칭호에는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업적에 대한 칭송이 담겨져있다.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견지하시여 자주, 자

립, 자위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그 과정에 인민군대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나고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국방공업이 마련되였다.

또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나가는 독특한 사회주의건설로선을 비롯하여 군사를 앞세워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고귀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조선의 경험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총대, 군사에 달려있기때문에 혁명투쟁에서는 언제나 군사를 혁명의 제1선의 위치에 세워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물론 군사를 발전시켜나가는데는 많은 투자가 든다. 현대전쟁에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액수에 달한다.

제국주의자들이 《대화》와 《협상》, 《평화》에 대하여 떠들 때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세가 완화되는 때도 있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군사사업을 제1선으로부터 제2선으로 돌려놓거나 후퇴시키는 등으로 위치를 변동시키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군사를 앞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사업만을 수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사회의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들의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군사를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을 앞세우면서도 사회의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군사선행의 원칙이 군사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가장 큰 힘을 넣는다고 하여 그것이 단지 군사사업의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고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국방공업과 중공업의 호상관계를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국방공업은 중공업에 기초하고있으며 중공업의 발전을 떠나서는 국방공업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국방공업에서 기본을 이루는 병기공업을 보아도 그것은 기계공업이다.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한 부문이지만 병기를 생산하면 국방공업이 된다. 금속공업이나 화학공업을 비롯한 다른 중공업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국방공업은 현대공업의 정수이고 집합체라고 할수 있다. 그 어느 부문보다 높은 과학기술을 요구하며 생산설비와 원료, 자재에 대한 요구성이 높은 국방공업의 우선적발전은 과학기술과 나라의 전반적공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그러므로 경제건설에서도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게 되면 국방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다 같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력강화를 위한 문건에 수표를 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인민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때에 이런 결심을 내리자니 정말 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다고, 난 이런 때가 제일 괴롭다고 자신의 가슴아픈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한동안 아픈 심정을 달래시던 그이께서는 나직하나 격하신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야기해주자고, 인민들은 왜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였는가에 대하여 다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조선인민에게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였다. 원료난, 동력난으로 공장들이 멎어서고 인민들은 식량난으로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직 혁명의 모든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구원하는 길은 군사선행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시고 군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군사선행의 이 길은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도 기어이 가야 하는 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 군사선행의 길을 헤쳐오시며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이 길이 있어 조선혁명의 총대기둥이 한단두단 높아지고 억세여졌으며 조국번영의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길에서 한평생 찾으신 단위는 1만 4 290여개에 달한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167만 4 610여리의 강행군길을 걷고 걸으시며 전대미문의 역경속에서 조국과 혁명, 사회

주의를 수호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지구둘레길이를 4 만 55Km 라고 볼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강행군길은 지구둘레를 근 17 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거리이다.

군사사업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고 그 선차적해결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군사선행의 원칙을 견지하였기에 조선인민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총대가 없는 빈땅에서는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지만 자위의 성새우에서는 광활한 천년미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

오늘 조선은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커다란 변혁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군사선행이야말로 작은 나라도 큰 나라로,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게 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었다.

2) 선군후로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을 선봉에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여왔다. 이것은 선행한 맑스주의혁명리론의 요구였다.

맑스는 19 세기 중엽에 발전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현실을 반영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자본의 지배와 온갖 찾

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라는것을 밝히고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저서 《공산당선언》에서 부르죠아지에 대립하고있는 모든 계급들가운데서 로동계급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잃을것은 철쇄이고 얻을것은 전세계라고 하였다.

당대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이 리론은 그 시기와 그 이후의 일정한 시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긍정적역할을 하였다. 빠리콤뮨이 세상에 출현하고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한 력사적사실이 이것을 증명하였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는것이 어길수 없는 하나의 공식처럼 인정되게 되였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물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것을 의미하고 있다.

맑스주의혁명리론이 나온 때로부터 백수십여년이 지나갔다. 시대는 멀리 전진하였으며 사회적환경도 계급관계도 로동계급의 처지도 크게 달라졌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특히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로동계급의 생활적기초가 달라지고 로동은 더욱더 기술화, 지능화되고있다.

로동계급대렬은 지식인화되여가고있으며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로동자들보다 기술로동, 지능로동,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따라 독점자본의 지배가 강화되고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가 더욱 범람하게 되며 이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각성과 의식화, 혁명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있다.

이로부터 맑스와 엥겔스가 한세기 반전에 내놓은 리론과 공식은 현시대에는 맞지 않게 되였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혁명에서나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계급관계에 기초하여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혁명의 주력군을 규정하는 기본척도는 기존공식이나 관례가 아니라 현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조선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시여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입니다.》

조선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을 지켜선 혁명대오는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는 제국주의강적과 직접 맞서 사회주의와 혁명,

인민의 운명을 총대로, 목숨으로 사수하고있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승리도 있으며 인민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도 있다는 지론은 그 어떤 구호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미제의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집결하면서 북침전쟁소동을 끈질기게 벌리고있다.

미제가 작성하였던 전쟁계획들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90년대의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98》 등은 모두 조선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구체화한 침략전쟁계획들이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작성된 전쟁각본도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속전속결의 공세전략》을 구현한 《작전계획 5027-04》, 《북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 《우발계획》, 북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한 《신작전계획 5026》, 끊임없는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로 그 누구를 이른바 《동요와 붕괴에로 유도》한다는 《작전계획 5030》, 조선을 주되는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한 《핵태세검토보고서》 그리고 《작전계획 5029-05》, 《작전계획 8022-02》등이 그런것들이였다.

사실들은 미제가 새로운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기회만을 노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강위력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준비된 인민군대는 적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있다.

인민군대는 그 어떤 전투나 불의의 침략전쟁에도 대응할수 있게 다양한 전법과 전술들을 갖추고있으며 자위적핵억제력을 비롯하여 온갖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다.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해 인디아신문 《제이. 엠. 디. 바라트》에 실린 글에서는 《조선에는 세계최강급의 군사력이 있다. 철벽의 방어능력뿐아니라 무비의 공격능력도 갖추어져있다. 만지역과 발칸반도에서 제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폭탄과 미싸일을 마구 갈겨대던 미국이 이 나라에 대해서만은 감히 선불질을 못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썼다.

오늘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고 그 타격을 피할자리가 이 행성우에 없으며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무자비하게 소멸될것이다.

하기에 조선의 기를 꺾어보려던 미제는 언제나 인민군대의 위력에 질겁하여 물러서군 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신 조선의 현실은 실로 많은 의미를 담고있다.

미국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미국의 힘의 행사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는 인류에게 평화를 선사한 례가 없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침략적본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일삼는것이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고 본업이다.

제국주의와는 오직 투쟁하는 길밖에 없으며 투쟁을 통해서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있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평화는 양보와 순종으로 얻으려고 할것이 아니라 힘으로, 필요하다면 전쟁으로 얻어내야 한다.

어느 한 력사가는 이렇게 말했다.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천만번 옳은 말이다. 선군에 의하여 다져진 군사적위력이 있기에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있는것이다.

인민군대의 위력은 단지 반제군사전선에서만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분야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면 그 기본고리를 바로 찾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가장 준엄하였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도 창조와 건설의 맨앞장에서 영웅적위훈을 높이 떨쳤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

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86(1997)년 10월 23일 나라의 대동력기지인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에 맡겨주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당시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려면 결정적으로 화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늘여야 하였다. 특히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을 추켜세우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현지로 달려간 인민군군인들은 매 탄광과 갱들을 맡아 석탄생산과 수송을 경쟁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한몸이 그대로 착암기가 되고 폭약이 되여 굴진을 진행해나갔으며 탄차가 보장될것을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등짐을 져서라도 캔 석탄을 막장밖으로 운반하였다.

투쟁의 나날에 얻어진 한삽의 석탄, 한 W의 전력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간 인민군군인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이런 줄기찬 투쟁속에서 석탄산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으며 이해 말에 이르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은 훨씬 높아지게 되였다.

전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은 그들이 나라의 곳곳에 일떠세운 1 000여개가 넘는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도 어려있다.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의 자욱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새겨져있다.

청류다리(2 단계)와 금릉 2 동굴,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 안변청년발전소(1, 2 단계), 태천 5 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곳의 발전소건설, 정방산과 구월산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기 위한 공사, 룡문대굴공사, 단군릉개건공사, 4.25 려관건설, 황주닭공장건설, 강원도, 평안북도의 토지정리…

이 자료들은 주체 84(1995)년부터 주체 89(2000)년까지의 기간에 인민군군인들이 이룩한 중요대상건설성과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에 한 외신은 《지금 북조선의 모든 양상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군유일중심의 특이한 정치로 펼쳐지고 있다. 군대는 이 나라 사회주의정치실체를 고수하는 위력한 주력군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북조선이 처한 모든 경제적난관을 극복하는 말그대로 최고사령관의 돌격대, 주력부대로 활동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가장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을 지닌 혁명집단인것으로 하여 인민군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핵심적지위를 차지하고 주도적역할을 하며 혁명의 주력군으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마치와 낫우에 총대가 있다고 하는것이다.

《혁명무력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혁명승리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 이것은 혁명의 원리이며 공식이다.》

김 정 일

3. 현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 - 선군

정치는 해당 나라와 민족의 부흥번영과 그 전도를 좌우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어떤 정치가 실시되는가 하는데따라 그 나라, 그 민족이 번영의 길을 걸을수도 있고 풍파를 겪을수도 있으며 지어는 사멸할수도 있다.

선군정치라는 개념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그것은 군사를 앞세우는 정치, 정치와 군사가 결합된 정치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 군사를 앞세우는 정치, 정치와 군사가 결합된 정치가 선군정치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였는가?

인류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와 군사는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것들사이의 결합은 선군정치에서 비로소 시작된것은 아니다.

고대의 스파르타국가처럼 애초에 군사로써 사회관리를 대신한 정치도 있었다. 20세기 일부 나라들에서처럼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뒤집어엎은 다음 모든 정치조직의 우에 군대를 올려놓고 군부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사회생활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군권정치도 있었다.

그러나 스파르타국가는 사회발전이 정체되여 자기의 존재를 마치고 력사무대에서 사라져버렸으며 군부가 국가사회생활을 제멋대로 좌우하던 군사독재도 민주주의의 물결에 밀려나고말았다.

그것은 착취사회에서의 군사정권, 강권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일삼는 반동적인 정치였기때문이다.

선군정치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지켜주는 정치이다. 정치도 인민을 위한 정치, 군사도 인민을 위한 군사이다. 인민을 위한 군사를 인민을 위한 정치와 밀접히 결합시킨 정치가 바로 선군정치이다.

그러면 선군정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자.

1) 대결이냐, 굴종이냐

1990 년대 중엽에 이르러 조선의 정세는 매우 엄혹하고 복잡하였다.

동서간의 랭전의 상징이였던 베를린장벽이 1989 년 11 월에 허물어지고 뒤따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대정치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는것을 주요전략적 목표로 내세웠다.

1991 년 1 월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부쉬 1 세는 미국회에서 한 일반서신연설에서 《오래동안 바라오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랭전의 위

험이 없고 시장과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세계질서》를 세우겠다고 떠벌이였다.

미국은 저들이 주도하는 1 극세계를 세우는데서 조선을 가장 큰 장애로 보고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악랄하고 집요하게 벌렸다.

미제의 광란적인 고립압살책동은 군사, 정치, 경제, 사상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기본은 군사력에 의거한 침략과 전쟁책동이였다.

미제는 랭전종식후 침략무력을 유럽으로부터 조선반도와 그 주변으로 이동전개하였으며 남조선주둔 미군현대화에 미쳐날뛰였다. 한편 미제의 군사연습은 날과 달, 년과 년을 이어 끊임없이 진행되였다

특히 조선인민이 대국상을 당한것을 기화로 미제의 압살책동은 더욱 광란적으로 감행되였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결식을 거행하던 애도의 날인 주체 83(1994)년 7 월 19 일에도 미제는 태평양함대의 비행기들을 출동시켜 남조선지역상공을 작전무대로 하여 도발적인 《공중타격연습》을 벌리였다.

1995 년에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강점미군뿐아니라 수많은 해외침략무력까지 투입하였다.

1996 년에 들어와서는 남조선에서 《독수리》, 《을지 포커스 렌즈》, 《호국 96》, 《아르에쓰오》, 《화랑》, 《프리덤배너》 등 각종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년중 벌려놓았다.

이것은 전쟁전야에만 찾아볼수 있는 일로서 조선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모한 전쟁광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사상문화적침투책동도 교활하게 벌렸다. 원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는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여왔다.

력사적으로 미제의 지배주의적책동은 중요하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여왔다. 그 하나는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략하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사상문화적침투의 방법으로 와해시키는것이였다.

미제는 《100 대의 전투폭격기가 감당해낼수 없는것을 10 명의 <사도>가 할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1949 년에 창설된 《자유유럽방송》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데서 재미를 본 미제는 조선을 붕괴시키기 위한 《자유아시아방송》에 매달렸다. 1996 년에 방송을 개시한 미제는 1997 년부터 조선을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매해 1 000 만 US$를 지출하였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이 진행되였다.

조선은 지난 시기 대외무역에서 거의나 사회주의시장에 의거하여왔다. 그런데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하면서 사회주의시장이 붕괴되다보니 원유, 콕스를 비롯한 필요한 원

료, 연료, 자재를 사올수 없게 되였다.

이것을 기회로 삼은 미제는 조선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봉쇄를 실시하였다.

미제는 조선과의 통상 및 금융관계와 우편, 전신 등을 모두 단절하였으며 저들의 은행에 있는 조선의 돈을 모두 동결시키고 일체 US$로 결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와쎄나협정》(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수출통제기구인 《코콤》의 후신)을 비롯한 각종 경제봉쇄악법들을 모두 발동하여 조선에 대한 경제봉쇄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갔다.

설상가상으로 조선인민은 민족의 대국상이후 련이어 겹쳐든 혹심한 자연재해로 커다란 생활상타격을 받았다. 폭우와 왕가물, 태풍과 해일이 엇바뀌여 년년이 들이닥쳐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겹쌓인 난국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들이였으며 그것은 국가의 운명, 매 가정, 매 사람의 생존자체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군사학적견지에서 볼 때 적들과 대치한 전선에서 작전과 전투가 성공하려면 공고한 후방과 믿음직한 익측이 있어야 한다.

공고한 후방이 있어야 전선에 필요한 방대한 인적, 물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믿음직한 익측이 있어야 좌우량익측으로부터의 적의 협공을 불허하고 작전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전략적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익측과 후방이 없는 전선은 적의 포위를 면할수 없고 종국적으로 파멸된다는것이 군사학이 가르치는 초보적인 상식이다.

1990년대에 조성된 정세가 바로 이러하였다. 당시 조선은 물러설 곳도 린접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 처해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포위환을 형성하고 사면팔방에서 강도높게 조여들었다. 원쑤들은 자비가 없었고 마지막까지 조선을 압살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들이댔다.

대결이냐 굴종이냐,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두길중 한길을 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첫번째 길은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였다.

그러나 이 길은 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치며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하는 희생을 동반한 간고한 투쟁의 길이였다. 이 길은 비루하게 남에게 동냥을 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노예로 사는 길이 아닌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력사의 시련앞에 당당히 맞서나가는 자주의 길, 신념의 길이였다.

반대로 두번째 길은 제국주의의 노예로서 고통과 슬픔을 강요당해야 하는 예속의 길, 망국의 길이였다.

조선인민은 군력이 약하여 20세기초엽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한 쓰라린 과거를 안고있었다. 노예로 되여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인민들은 노

예적인 생활의 하루하루가 과연 어떤것인지 짐작도 못할것이다.

조선인민은 노예적인 생활을 40여년간 강요당했다.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기간에 일제는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징병, 징용에 강제로 끌어갔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을 랍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드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죄악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자연부원을 무제한하게 략탈해갔으며 심지어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떠들면서 조선의 말과 글을 없애버리고 조선의 넋을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조선인민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수십여년간 벌려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로 하여금 총대, 군사력이 약하면 제국주의의 노예로 전락된다는것, 망국은 순간이고 복국은 천년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게 하였다.

조선이 살아남는 길, 승리하는 길은 오직 제국주의자들앞에 굴복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의 강권과 전횡에 힘으로, 총대로 단호히 맞서는 길뿐이였다.

이것을 심장깊이 새긴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의 노예의 운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처지에서도 최악의 조건에서도 원쑤들과의 사생결단의 대결전, 판가리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

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는 길을 택하시였다.

주체 84(1995)년 1 월 1 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박솔 우거진 어느 한 인민군구분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에 도착하시여 새해를 맞는 군인들을 축하해주시고 그들의 화력복무훈련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것은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양실과 병실까지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구분대의 사상교양사업과 물질문화생활전반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전투준비와 군인생활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다박솔중대에 대한 시찰을 마치신 그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에게 혁명투쟁에서 기본은 총대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대가 약하면 적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짓부실수 없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녹아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그 어떤 세계적인 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라를 압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인민군대만 강하면 두려울것이 없다, 적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있는것도 인민군대가 강하기때문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솔중대에 대한 현지시찰은 단순한 군부대시찰이 아니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총대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온 선군정치의 전면적개시를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이 시찰은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2) 군사를 제일국사로, 군대를 주력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자주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이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것은 선군정치의 본질의 한 측면을 이루고있다.

정치는 사회생활전반을 포괄하는 사업으로서 방대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정책수립과 그 실행의 대상으로 된다.

선군정치는 이 가운데서 군사사업과 관련된 문제,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힘을 넣는다.

군사는 군대와 국방공업, 전쟁 등 나라의 방위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사회생활의 한 령역이다.

군대의 조직과 강화발전과 같은 군건설, 군대의 훈련이나 전쟁과 같은 군사활동, 무장장비의 생산과 관련된 국방공업, 작전 및 전략물자의 보장과 관련된 군수생산, 민간무력의 준비, 진지굴설이나 갱도건설, 군사시설의 마련과 같은 군대와 국방력의 강화에 필요한 모든 사업이 군사에 포함된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군사사업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와는 거리가 먼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오히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를 비롯하여 다른 사회생활분야들이 더 절실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그런것이 아니다. 군사는 국가사회생활의 그 어느 분야보다도 사람들의 생활과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도 크게 지을수 있고 지진과 태풍에도 끄떡없는것처럼 나라와 민족도 군사력이 강해야 안정된 환경과 조건에서 경제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선군정치는 이로부터 군대를 강화하는것을 군사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전략전술적 및 군사기술적위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힘을 넣는다. 그리고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최대의 힘을 집중한다.

군사력이 약하여 나라와 민족이 외세에게 짓밟히게 되면 민족성원모두가 그 수치와 모욕, 고통과 불행을 면할수 없다.

이것은 미제의 그레네이더침공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레네이더인민은 1979년 3월에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혁명정부는 산업을 국유화하고 모든 자연부원을 국가수중에 장악하였으며 토지개혁과 남녀평등권 등을 실시하였다.

오래전부터 침략야망을 품어온 미제는 1983년 10월 25일 약 70대의 비행기를 실은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11척의 군함들의 엄호하에 약 2 000명의 미제침략군을 그레네이더에 들이밀었다.

약 11만명의 인구밖에 안되는 작은 섬나라인 그레네이더를 강점한 미제침략군은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2 000여명의 애국자들을 철창속에 가두어넣었다.

미제는 이 나라에 괴뢰정부를 세우고 이전 혁명정부가 만들어놓은 모든 국가법률을 페지하였으며 그레네이더인민의 모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짓밟아버렸다.

그레네이더에 대한 무력침공은 미제야말로 가장 흉악한 침략자라는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총대를 강화하지 못한데로부터 초래된 비참한 결과였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고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정권을 전복하는것은 《국제헌병》인 미제의 상투적수법이다.

현실은 국방력을 마련하는 군사사업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선군정치는 바로 이러한 철리에 충실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 정치, 다시말하여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가장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이다.

선군정치의 본질의 다른 한 측면은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선군정치가 혁명군대를 핵심, 주력으로 내세운다는것은 군대를 틀어쥐고 군대를 본보기집단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그의 선도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한다.

력사적으로 지배계급, 착취계급은 군대를 지배와 억압, 살륙과 략탈의 도구로 써먹으면서 그 침략성과 야만성을 키

워왔다.

지금도 미제침략군에 처음으로 입대하는 병사들에게 주는 소책자의 첫페지에는 《너희들은 무자비하고 능숙한 살인자가 되여야 한다.》고 씌여져있으며 《병사란 무엇인가》라는 글에는 《국가는 너를 위하여 3만 US$를 지불하고있다. … 너는 자기에게 차례진 인간을 죽이는것으로 이를 보상할수 있다.》라고 씌여져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서 감행되였으며 지금도 계속되고있는 미군의 살륙만행은 바로 비인간성, 반인민성이야말로 제국주의반동군대의 감출수 없는 본성과 야수적기질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인민대중의 해방위업에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는 이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혁명군대라고 하여 단순히 혁명에 참가하는 군대나 사회주의나라의 군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나라의 군대라고 하여도 옳바른 정치적령도를 받지 못하면 혁명성과 조직성, 단결력과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이미 이룩한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으며 반혁명의 도구로 리용당하게 된다.

혁명군대는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 조건에서만 탄생할수 있고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이러한 혁명군대를 키우고 그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정치가 바로 선군

정치이다.

인민군대가 미제의 군사적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셔버린 사실은 선군정치야말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위업을 철저히 지켜낼수 있는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주체 83(1994)년 12월 령공을 침범한 미군의 최신예정찰직승기를 단방에 격추하였다.

그리고 주체 92(2003)년 초 동해상공에서 군사정탐행위를 하고있는 《RC-135》미군정찰기를 전투기로 맞받아나아가 근접제압하여 황급히 도망치게 함으로써 자기의 대답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앞장에 세워 사회주의건설전반을 추진시켜나간다.

조선에서는 도처에 현대적인 가금목장과 돼지공장, 기초식품공장들을 건설하는 사업도 인민군대가 맡아하였으며 칠보산과 구월산, 룡문대굴과 울림폭포를 비롯한 이름난 명승지들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개발하는 사업도 인민군대가 다 맡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인민대중이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극장, 영화관, 식당들과 민속공원까지도 바로 인민군대가 맡아 본보기로 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였다.

바다물이 짜다는것은 한모금으로도 알수 있다는 격언이 있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군사와 관련하여서는 예로부터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군대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군대는 한가지 일, 전쟁과 전투밖에 써먹을데가 없다는 뜻도 담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인민군대가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사수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의 복리를 위한 사업까지도 맡아 수행하는 세상에서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의 병사들이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가장 믿음직한 핵심력량, 전위부대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도 수호하고 경제건설도 다그치며 인민의 행복도 가꾸어나가니 이것이야말로 《용병만사》라고 해야 할것이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앞장에 세워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따라배우고 지녀야 할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전투력의 본보기를 마련할수 있게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민군대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생활방식을 본받아 비상한 정신력으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교육,체육과 예술을 비롯한 전반적사회생활분야에서 급속한 발전과 변혁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최근 조선에서 진행되고있는 최첨단돌파전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최첨단돌파전은 CNC 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경험에 토대

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여넘어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의 힘으로 단 몇개월사이에 일떠세워 강철생산을 현대화하였다. 조선에서는 21 세기의 본보기공장들이 훌륭히 꾸려져 표준형의 3 축, 4 축 CNC 공작기계는 물론 크랑크축연마반, 9 축선삭가공중심반, 11 축복합가공중심반 등 최첨단 CNC 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게 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사람들의 정신력을 높이고 군대와 인민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선군정치방식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3) 위대한 시대정신

시대정신은 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이다. 시대정신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하며 해당 시대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한다.

조선혁명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그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 로정에서 매개 시기, 매개 단계에는 그 시대

의 혁명정신이 기록되여있다.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항일혁명투쟁시기는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위업을 실현해야 하는 엄혹한 투쟁의 시기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놓여있던 수난의 시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조선혁명을 기어이 완수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피어린 투쟁을 벌려 마침내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었다.

1950년대는 조선에서 민족의 생사운명이 판가리되던 준엄한 시련의 년대였다.

이 시기 조선인민은 조국의 운명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하였다.

그리고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도시와 농촌, 공장들을 복구건설하며 농촌경리와 도시의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회주의혁명도 진행하였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자립경제의 토대도 마련해야 하였다.

이 모든 투쟁은 미제를 비롯한 안팎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 겹친 간고한 투쟁이였다.

이 시기 조선인민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조선인민은 해방후 5년간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곧 조국의 품이라는것을 깊이 절감하였으며 조국을 잃으면 또다시 노예로 된다는것을 철리로 새기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수호하였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경제적토대를 튼튼히 다지였다.

1970년대는 조선혁명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된 시기였다.

이 시기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였으며 당과 수령의 령도에 충정다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튼튼히 확립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커다란 비약이 일어날수 있었다.

이것도 그 시기에 높이 발휘된 1970년대의 투쟁정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 1950년대의 투쟁정신, 1970년대의 투쟁정신을 비롯하여 혁명정신들이 나래치는속에서 조선혁명의 줄기찬 전진과 승리적발전이 이룩되였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것으로 하여 시대정신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매우 크다.

현시기 조선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시대정신은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입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하여 말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은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이다.

그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이 바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창조되였기때문이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공사는 강원도일대의 전력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설계되고 추진되여온 공사로서 넓은 지역의 강하천들을 한곬에 모아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게 될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였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더라도 중요공사과제의 하나인 물길굴의 총 굴착량이 수백만㎥에 달하고 수많은 량의 콩크리트혼합물, 수십만 t 의 목재와 강재, 폭약이 요구되였다.

서방세계가 수십억 US$가 투자되였을것이라고 산출한 서해갑문 총 공사량의 두배가 넘는 실로 엄청난 공사였다.

저수지언제를 건설하여야 할 지대의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조건이 불리하여 토목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 일부 나라의 기술자들까지도 《도저히 불가능한 무모한 공사》라고 할 정도였다. 하기에 적들은 이 공사를 놓고 《종이장우의 발전소》요 뭐요 하면서 별의별 악선전을 다 늘어놓는 한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파탄시켜보려고 악랄하게 날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굴지의 대형수력발전소를 일떠세우고야말 굳은 결심을 안으시고 방대하고 어려운 건설공사를 인민군대에 맡겨주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관철에서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고 오직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는 길만이 있을뿐이라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건설전투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전

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라는 구호를 들고 육탄이 되여 물길굴을 뚫고나갔다.

장령들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웨치면서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붕락구간을 극복했고 병사들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은 나에게로!》라는 구호를 웨치며 자기의 몸을 내댔다.

수송을 맡은 군인들은 《맡겨진 수송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부대로 돌아오지 말자!》는 구호를 내걸고 해발 670여m나 되는 험한 령길을 넘나들었고 험한 산길, 고개길을 헤치며 물자들을 날랐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한 강을 가로지르는 도갱굴진중 굴관통 10여m를 남겨두고 뜻밖에 물구멍이 터져 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려 잠간사이에 갱도에 물이 찼다.

일이 이렇게 벌어지자 일부 사람들은 이제라도 굴진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고 물길굴을 두동강내여 발전소를 따로따로 건설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민군군인들은 그렇게는 못한다, 대형물길굴을 뚫으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이며 물길굴의 위치는 수령님께서 직접 잡아주신것이다, 당의 명령앞에서는 우회란 있을수 없다, 무조건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품치는 갱안의 물속에 뛰여들어 물구멍을 막고 밤낮없이 치렬한 전투를 벌려 끝내 물을 퍼내고 도갱굴진을 진행하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은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 그 어디에서나 높이 발휘되였다.

이러한 신념과 결사의 각오로 싸웠기에 군인건설자들은 석수가 쏟아져 허리를 치는 물속에서도 작업굴을 뚫고 방대한 물길굴과 하늘높이 치솟은 언제, 우람찬 취수구를 비롯한 웅장한 구조물들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주체 85(1996)년 6월 1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완공단계에 들어선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시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쏟아져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언제와 취수구를 비롯한 지상구조물들과 대형물길굴을 다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저으기 흥분된 어조로 우리 군인들이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만난을 뚫고 나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바로 이렇게 탄생하였다.

조선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가 가장 완벽하게 담겨져있다.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숭고한 희생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열렬한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사랑, 혁명적동지애, 바로 이것이 혁명적군인정신에 담겨져있는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이 사회에 흘러들어감으로써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가 확고히 실현되고 조선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는 몰라보게 달라지게 되였다.

당과 수령을 받들어도 인민군대와 같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받들고 맡은 일을 하여도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기풍으로 싸워나가고있다. 문화정서생활에서도 인민군대의 전투적이고 락천적인 생활기풍으로 생활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해나가고있는것도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이 있기때문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일반화되는 과정은 곧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와 일반화는 선군정치사에 하나의 획기적리정표로 되였다.

4) 굳건한 3대기둥

든든한 건물은 억센 기둥의 지지를 받는다. 기둥이 든든해야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생활의 영원한 보금자리로 될수 있다.

정치에서는 바로 이 기둥이 그 정치를 받드는 력량이다. 튼튼한 정치적력량에 의거하는 정치는 자기의 목적을 끝까지 실현해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는 력사의 시련과 난관앞에서 주저앉거나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조락하게 된다.

선군정치가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속에서도 끄떡없고 자기의 정의의 목적을 주동적으로, 가장 활력있게 실현해나가고있는것은 바로 억센 기둥, 강위력한 정치적력량에 의거하고있기때문이다.

선군정치는 혁명적당과 혁명무력, 일심단결의 3대혁명력량을 기둥으로 하고있다.

그러면 그에 대하여 하나씩 보기로 하자.

오늘 조선에 가게 되면 TV와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를 자주 들을수 있다.

이 노래를 모란봉악단을 비롯하여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에서 형상하여 부르고있으며 조선인민모두가 사랑하고있다.

노래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칭송하고있다.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넘을 령이 없어라
불구름 헤치고 락원 세우며
인민들 세기의 영웅되였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백전백승 주체위업 떨쳐나간다

가사를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혁명은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여 왔다.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며 오직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이룩된것이다.

선군정치도 다를바가 없다. 선군정치는 철저히 조선로동당의 정치이며 선군혁명령도는 어디까지나 조선로동당의 령도이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실현의 제일가는 기둥, 선군정치실현을 위한 가장 중추적인 력량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입니다.》

선군정치에서는 군대가 혁명과 건설의 핵심부대, 전위부대로 된다. 그렇다고 하여 정치실현에서 군대가 당보다 우위에 놓이거나 당의 역할을 대신할수 없다.

군대도 당의 령도를 받아야 혁명군대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실현에는 당만이 아니라 국가정권과 근로단체들, 혁명무력 등 사회의 여러 정치적력량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 력량을 령도할수 있는 정치조직은 오직 당밖에 없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실현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기치높이 천만군민을 선군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선군혁명위업수행의 령도적정치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총대강화를 앞세우는 혁명로선을 제시하고 국가정권을 비롯한 모든 정치조직들이 선군의 원칙에서 자기의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도록 당적으로 지도한다.

또한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선군정치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하기에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자라나 당의 위업, 수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강위력한 주력군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다.

주체 99(2010)년 10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열병식에서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로농적위군열병종대들이 보무당당히 나갔으며 그 뒤를 따라 최신형의 포,

장갑차, 땅크종대들, 방사포종대들, 미싸일종대들과 요격미싸일종합체들이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이 열병식을 보면서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가슴뿌듯이 절감하였다. 동시에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생해나갈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는 선군의 위력이 깨우쳐주는 고귀한 철리가 있다.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총대는 혁명투쟁에서 막대기보다 못하다는 바로 그것이다.

조선과 같이 당과 군대가 밀착되여있는 나라는 없으며 인민군대처럼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무장력은 없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목숨은 버려도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라고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선군정치를 받드는 기둥은 다음으로 불패의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가 선군정치를 받드는 기둥이라는것은 인민군대가 선군정치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고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위력한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이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혁명을 총대로 지키는 무장대오로서 당과 수령옹위에서 그 누구보다도 투철하며 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결사보위한다.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적구호문헌들을 지켜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17명의 공화국영웅들의 위훈에는 인민군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그대로 비껴있다.

사나운 불길과 맞서 그들이 결사전을 벌리던 곳의 바로 아래켠에는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었다. 굴러내리면 순간에 가닿을수 있는 개울이였지만 17명의 불사신들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주저없이 불속으로 뛰여들었다.

온몸을 태우던 불길속에서는 《끝까지 사수하자》, 《결사옹위하자》는 신념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불길은 17명의 몸은 태울수 있었지만 그들이 간직한 수령결사옹위정신만은 태울수도 날려보낼수도 없었다.

불에 타지도 않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투철한 신념과 순결한 의리로 간직한 참된 인간들이 바로 인민군군인들이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전투력있는 전위대오이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결사관철해나가고있다.

이러한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고있다.

불패의 인민군대를 떠나서 그처럼 든든하고 위력한 선군

정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고 말하고있다.

흩어지면 모래알처럼 짓밟히고 뭉치면 산악처럼 솟아난다는 말이 있다. 혁명투쟁에서는 뭉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 이로부터 단결은 혁명의 생명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라고 하는것이다.

일심단결은 혁명대오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통일단결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광범한 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사상적순결체,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뭉쳐진 도덕의리적결합체이다.

바로 이러한 일심단결은 선군정치의 튼튼한 정치적지반이며 강력한 추진력으로 된다.

정치적지반은 일정한 정치방식이 뿌리박고있는 터전이며 그 공고성을 담보하는 근본원천이다. 천만군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진 단합인것으로 하여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다.

한 시인부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올린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믿어주십시오. 장군님!

저희들은 굶어죽으면 죽었지 장군님을 간직한 이 심장

은 절대로 팔지 않을것이며 얼어죽으면 죽었지 장군님품을 떠나 남의 집 지붕밑으로는 한발자국도 들어서지 않을것이며 단두대우에서 매맞아죽으면 죽었지 장군님노래를 순간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시인부부의 신념과 의지만이 아니라 천만군민모두가 간직하고있는 절대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정치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여나가자면 정치적힘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적목적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정치방식은 언제가도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나타낼수 없다.

일심단결은 사람들의 단순한 기계적결합이나 산수적인 합계가 아니다.

모든 사회성원들이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의 로선과 방침을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지향도 하나로 되고 운명도 미래도 하나로 합쳐진것이 다름아닌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은 공동의 정치적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대중을 한결같이 일떠세우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선군정치를 강력하게 추동해나간다.

오늘 조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

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하기에 세계는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바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고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다.

재미동포인터네트 《민족통신》의 한 론설위원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유태인들은 어느 국가의 경제력이 강하거나 국민들이 잘 산다고 그 국가를 우월하다고 보지 않는다. … 그들은 북조선을 왜 강한 국가로 인식하는가. …

북조선이 핵무기와 미싸일을 보유한 국가이기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령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 북조선만큼 자주성이 강하고 배짱있고 일심단결된 힘을 갖고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북조선에는 위대한 령도자가 있고 주체철학이 있고 령도자와 인민들이 일심단결된 힘, 핵보다 무서운 힘이 있다는것을 잘 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라고 하면 핵무기를 념두에 두고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이 세상에 핵무기의 물리적힘을 릉가하는 그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있다.

천만군민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이다.

선군정치의 존립과 발전의 튼튼한 지반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는 일심단결, 그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최대의 무기이다. 일심단결은 오직 조선에만 있고 조선에만 있을수 있는 특허무기이다.

이러한 특허무기에 의하여 안받침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의 정치방식으로 되는것이다.

5) 새로운 선군령도체계

일반적으로 정치실현에는 적합한 정치실행기구와 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과제로 나서게 된다. 말하자면 정치라는 내용물을 담을수 있는 알맞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오늘 조선의 선군정치는 선군령도체계에 의하여 훌륭히 실시되고있다.

선군령도체계는 최고사령관을 령도의 중심으로 하는 체계이다.

선군정치에서는 다른 나라의 정치체제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류형의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다름아닌 최고사령관이 령도의 중심으로 되여있고 그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고있다.

그것은 군사를 중시하는 선군정치자체의 필수적요구이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사중시의 정치를 실시하자면 무엇보다 혁명군대를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키워야 한다.

사회에서 인민군대의 우선적인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

하고 그들을 선군정치의 기둥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은 전군을 통솔하는 최고지위에 있는 군령도자, 최고사령관의 령도체계의 확립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혁명군대의 최고사령관은 뛰여난 군사적예지로 전군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총적방향을 제시하며 변화되는 군사정치정세를 꿰뚫어보고 과학적인 전법과 전술을 제시한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능력있는 지휘관, 병사들로 키운다.

물론 군대에는 분대로부터 소대, 중대, 대대, 련대 나아가서 사단, 군단에 이르기까지 상급의 의도와 명령을 실행하는 정연한 군사명령지휘체계가 세워져있는것이 통례이다. 그렇다고 하여 최고사령관이 있으면 그의 령도체계가 의례히 확립될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 어느 개별적인 지휘관의 자의적인 명령이 허용되면 그에 복종하지 않는 무질서가 조성되게 된다. 나아가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고 그와 어긋나는 외곡된 명령이 내려지며 이미 세워져있던 지휘체계도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때문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지휘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최고사령관의 령도체계는 전반적혁명무력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에 절대복종하는 규률과 질서이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이다.

최고사령관의 선군혁명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고 군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고사령관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강철같은 혁명적령군체계의 확립, 이것이 오늘 조선에 확립되여있는 선군령도체계의 참모습이다.

선군령도체계는 또한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이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라고 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국가기관들을 조직하고 국가사회생활전반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정치체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책동에 주동적으로 맞서나가기 위하여 선군정치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국가기관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군정치를 실현하자면 사회전반체계와 그 모든 기능을 국방을 중시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군사를 제일국사로 중시하도록 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할 때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국방사업은 제국주의침략으

로부터 나라와 인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그런것만큼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반드시 나라의 군사사업, 국방사업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국가기구가 있어야 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의 국가기구체계를 보면 국방사업을 맡아보는 국가기구는 물론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기구체계에서 중추에 놓여있지 못하고 다른 기구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거나 어떤 경우에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선군령도체계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구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거나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중추로서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여 사회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구성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명실공히 선군정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기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있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국방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가사회생활전반을 조직지휘해나가고있다.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맞서 조국을 보위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업은 어느 한 두 사람의 힘이나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힘 또는 한정된 부문의 기능과 역할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이 사업은 포괄적인 정치조직, 국가기구의 통일적지

도를 요구한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에서는 나라의 모든 혁명무력과 국방공업 등 군사사업, 국방사업전반을 국방위원회가 장악지도하고 관리한다. 나아가서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되는 국가사업전반,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까지도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조직집행한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법적으로 고착되고 제도적으로도 완성된 공고한 체계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라도 법적으로 고착되고 제도적으로 확립되여야 공고하고 보편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법적, 제도적틀거리속에서 경제, 사상문화사업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들의 활동을 국방위원회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유일적이고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국가사회생활전반을 관리운영하는 체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0 기 제 1 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한 **김일성**헌법이 채택되였다.

이리하여 선군정치가 제도적으로, 전사회적규모에서 공고히 담보되는 새로운 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의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조선을 방문하였던 이전 쏘련국가안전위원장이였던

크르츄꼬브는 최고인민회의 제 10 기 제 1 차회의에서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에 대해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일성**헌법은 20 세기 창조물의 하나이다, 헌법에 군사문제를 명백하게 밝힌것이 잘되였다, 정치이자 힘인것만큼 정치의 보자기를 벗기면 군사인데 그 본질을 헌법에 묘하게 반영하였다고 찬사를 금치 못해하였다.

그의 이 말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강권과 전횡이 횡행하는 현대국제사회에서 매개 국가의 정치는 본질상 군력을 첫자리에 놓고 굳건히 다지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옳게 실현될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바로 조선에서 훌륭히 해결하였다는데 대한 찬사가 담겨져있다.

이것은 그 한사람만의 견해가 아니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선군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완전무결하게 해결해나가고있는 조선의 위력과 전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인이라고 할수 있다.

세상사람들이 인정하는것처럼 조선에 확립된 국방중시의 국가관리체계는 국방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국가기구체계이다.

김일성헌법의 채택으로 군사중시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한 조선식 사회주의는 굳건하며 그 위력은 선군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높이 과시될것이다.

《우리는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김 정 일

4. 선군정치와 오늘의 현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정치를 펼치며 위대한 정치는 위대한 현실을 낳는 법이다.

현실은 해당 사상과 정치가 옳은것인가, 옳다면 그것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어느 정도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는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척도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수호와 강성국가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조선은 선군의 힘, 정의의 총대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놓았다.

미제와 반통일세력의 분렬주의적책동이 파탄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된것도 선군정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조선이 인류에게 총대가 강하면 작은 나라도 대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주며 세계를 자주화의 길로 이끄는 선도적역할을 하는것도 선군정치가 펼친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인류정치사는 하나의 정치방식이 그처럼 짧은 력사적기간에 이렇듯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낳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가져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현시대는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위대한

선군시대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세계에 미치는 선군정치의 영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1) 조미핵대결

세계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미제는 1945 년 8 월 6 일과 9 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혔다.

버섯구름이 몰아온 피해로 히로시마에서 파괴, 손실된 면적이 13k ㎡, 피해가옥이 약 7 만호, 사망자가 약 26 만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참화를 가져다주는가를 보여주었다.

조선과 같이 그처럼 오랜 기간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나라와 민족은 이 세상에 없다.

미제의 핵공갈은 조선전쟁시기 로골화되였다.

1950 년 11 월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은 조선전쟁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하여 공언하였으며 미극동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조중국경지역에 원자탄 30~50 개를 투하할 계획이 있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였다. 1951 년 9 월과 10 월에는 미공군의 《B-29》폭격기들이 평양상공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위한 연습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핵위협은 전후에 더욱 가증되였다.

1957년 남조선에 첫 전술핵무기들을 반입, 배비한 미제는 1968년 1월 23일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인민군대에 의하여 나포되자 배를 돌려주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1975년 당시 미국방장관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폭언하였다.

랭전시기에 미국은 1만 3 000개의 핵무기를 해외에 배비하였는데 그중에서 6 000개이상이 조선반도주변과 아시아에 배비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미제는 1990년대초에 《핵무기개발의혹》과 핵사찰문제를 가지고 조선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며 조선식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강경압살책동에 매달리였다.

1968년 7월 1일에 조인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1967년을 계선으로 하여 당시까지 핵무기를 가지고있던 이전 쏘련,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하여서만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밖의 나라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것을 금지하고있는 심히 불평등한 조약이다.

1980년대 중엽에 5개 핵보유국들의 핵탄두수가 6만개를 넘은 사실은 핵보유국들의 핵군비확장을 방임하고있는 이 조약의 부당성을 명백히 알수 있게 한다.

이 조약에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나라가 핵무기없는 나라들에 핵위협을 가하지 말데 대한 내용이 담겨져있다.

바로 이 내용을 중시하고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목적밑에 조선은 1985년 12월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보유국이 비핵국가를 핵무기로 위협하지 말데 대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의 의무를 리행할 대신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강화하여나섰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압력을 가하여 핵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2개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나섰다. 미국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는 1993년 2월에 조선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페르샤만전쟁이후 군사력만능의 힘의 론리에 더욱 환장이 된 미제는 1993년 1월 26일에는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는것을 공포하고 사상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다.

미제는 이 연습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 일본의 미군기지들에서 신속반응전개무력을 비롯하여 20여만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토마호크순항미싸일, 《F-117》스텔스폭격기, 핵폭탄투하를 전문으로 하는 《B-1B》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켰으며 지어는 핵무기사용시의 지휘통신체계까지 발동시키였다.

이리하여 조선반도의 핵위기가 극한점에 이르게 되고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

였다.

미제가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조선을 먹어보려고 접어드는 조건에서 미제와의 군사적대결에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바로 이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82(1993)년 3월 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하달하시였다.

온 나라가 준전시상태로 넘어간 가운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부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과 인민들은 멸적의 기세 드높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금성철벽으로 지켰다.

뒤이어 주체 82(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갈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특별사찰강요에 대처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응당한 조취였다.

군사적압력과 핵압력소동으로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날뛰던 미제는 된타격을 받고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기일을 앞당겨 중지한다는것을 공포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는 특별사찰소동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첨예하게 벌어진 조미핵대결은 미국이 조선과의 정부급회

담에 응해나섬으로써 그후 3 단계에 걸치는 조미회담의 형태로 이어졌다.

조미회담은 외교분야에서 조선과 미국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이라고 말할수 있을만큼 치렬하게 벌어졌다.

제국주의와의 정치외교적대결에서 혁명의 근본리익을 고수하자면 추호의 양보도 모르는 강경한 자세에서 자주적인 외교전을 벌려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자주외교는 바란다고 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외교전에서의 승리의 기본담보는 언제나 자체의 튼튼한 군사적위력에 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불패의 군력이 있었기에 조선은 압력과 공갈을 기본수법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외교전, 조미회담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계속 강경하게 적들을 다불러대며 자기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시켜나갔다.

그리하여 10 월 21 일에는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선의 정당한 립장과 주장이 반영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발표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조선은 흑연감속로와 그 련관시설들의 동결과 해체, 비핵화의지의 표명, 핵전파방지조약복귀를 담보하였다.

그 대가로 미국은 2003 년까지 총 200 만 KW 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약 40 억 US$)제공과 그전에 매해 50 만 t 의 중유납입, 무역 및 투자장벽의 완화와 련락사무소설치, 국가관

계수립, 핵무기의 불사용과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것 등을 약속하였다.

이보다 하루 앞서 10월 20일 당시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라고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면서 그이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책임적으로 리행할것을 다짐하는 담보서한을 보내여왔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됨으로써 핵문제를 걸고 조선을 압살하려던 미국의 정책은 물거품이 되고말았으며 세계유일초대국, 핵대국이라고 자처하던 미국은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무릎을 꿇고말았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제공에서부터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조미기본합의문에는 합의문에 서명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경수로제공계약을 맺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14개월이 다 되여서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당한 구실을 붙여가며 경수로건설을 지연시켜왔다.

미국의 그릇된 처사와 책동으로 하여 2003년까지 제공하게 되여있는 경수로의 건설은 기초구뎅이를 파놓은데 불과하였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제공하게 되여있었다.

2002년초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부쉬는 일반서신연설에

서 북조선은 《악의 축》을 이루고있는 나라라느니, 대량살륙무기를 개발하고있는 나라라느니 하면서 조선을 걸고들었다.

2002년 10월초 미국대통령특사인 미국무성차관보 켈리의 평양방문이후에 미국은 조선이 농축우라니움계획을 추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관계는 물론 북남관계와 조일관계도 파국적상태에 들어갈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

미국은 11월 14일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해오던 중유제공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뒤이어 12월부터 실제적으로 중유납입을 중단하였다.

이리하여 실제상 조미기본합의문은 완전한 파기상태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적들의 책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에 대처하여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을 벌리고있는 조선이 자기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열백번 정당하다.

지난 시기 미제는 조선을 반대하여 핵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여러 차례나 시도하였다. 만일 조선이 힘이 약했더라면 그 방아쇠가 당겨진지도 오랬을것이다.

그렇게 되였으면 조선인민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조선반도정세는 어떻게 되였겠는가?

아마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되고 조선반도는 지난 세기 말엽의 발칸반도나 새 세기 초엽의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였을것이다. 그것도 인류가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가장 파국적인 핵전쟁으로 력사에 기록되였을것이다.

선군으로 다져진 힘이 강하기때문에 미국은 감히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지금까지 유지되고있는것이다.

국제사회가 조선의 전쟁억제력을 가리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평화의 믿음직한 담보라고 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조선의 전쟁억제력은 지구상 그 어느 곳에 있든 침략의 본거지를 정밀타격하여 소멸할수 있는 신뢰성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우리 행성에 핵참화를 들씌운 유일한 핵전범자, 핵무기를 제일 먼저 만들고 가장 많이 가지고있는 악의 제국, 그러면서도 비핵화와 핵전파방지를 요란스럽게 떠드는 파렴치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핵공갈을 일삼던 시대는 영영 끝장났다.

조선도 자기의 전쟁억제력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에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말이나 청원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강위력한 힘에 의하여 지켜야 한다.

조미핵대결은 바로 이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2) 선군 8 경

조선은 예로부터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리워왔으며 조선민족은 자기 고장의 유명한 경치와 아름다운 세태를 8 경으로 꼽으며 널리 자랑해온 풍습을 가지고 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관서 8 경, 관동 8 경을 비롯하여 조선에는 력사의 흐름과 함께 오늘까지 전해오는 8 경이 수십가지나 된다.

여기에는 자기 고향과 조국을 남달리 사랑하는 조선민족의 열렬한 향토애와 조국애가 반영되여있다.

선군 8 경은 선군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의 억센 기상을 반영하고있는 주체조선의 빛나는 상징이다.

선군 8 경에는 백두산의 해돋이, 다박솔초소의 설경, 철령의 철쭉, 장자강의 불야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평선,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범안리의 선경이 속한다.

선군 8 경은 시대의 새로운 자연경치를 대표하는것만큼 자연미 그자체로서도 희한한 절경을 이루고있다.

장군봉을 위시로 하는 백두련봉의 기암절벽과 천리수해를 물들이며 시작되여 순식간에 온 누리를 진홍빛노을로 뒤덮는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를 비롯하여 그 하나하나의 풍경은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수 없는 자연풍치의 절정을 이루고있다.

선군 8 경은 선군시대가 낳은 새로운 선경이다. 경치에는 당대의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게 된다.

선군시대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사항전의 시대인 동시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시대이다.

선군시대에 조선인민은 력사의 온갖 준엄한 시련을 뚫고 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영웅적투쟁과 거창한 변혁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약동하는 시대에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기상, 철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태여난것이 바로 선군 8 경이다.

선군시대 조선의 장쾌함과 아름다움을 8 가지에 담아 명명한 선군 8 경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므로 선군 8 경가운데서 몇가지만을 이야기에 담으려고 한다.

조선의 북변에 사시장철 백설을 이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백두산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와 더불어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민족의 기상과 조국애의 상징으로 간직되여왔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온 백두산은 오늘 선군혁명의 승리를 알리는 성산으로 거연

히 솟아있다.

선군 8 경의 첫번째 순서로 꼽히우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바로 희세의 위인이시며 선군혁명의 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상징하는 선군시대의 제일절경이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지가 그대로 비껴있다.

선군8경에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굴함없이 뚫고 륭성번영하고 부강발전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조선인민의 강의한 의지와 사생결단의 투쟁정신과 이 과정에 창조된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 반영되여있다.

선군8경의 하나인 장자강의 불야경은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일선에서 사생결단의 대담한 공격전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변시킨 강계정신의 생활력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경치이다.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받든 자강도인민들은 주저앉아 우는 소리를 한것이 아니라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자강도는 그 어느 도보다도 난관과 시련이 많았다.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그 어려운 시기에 식량이 아니라 일감을 달라

고 한것이 자강도로동계급이였다. 죽어도 기계설비만은 베고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한것이 바로 자강도사람들이였다.

자강도로동계급과 인민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빛나게 구현하여 6개월남짓한 기간에 여러가지 형식으로 된 29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정비보강하여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하였다.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17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돌리고 2만 1 300여세대의 살림집들에 전기난방을 보장함으로써 중소형발전소건설과 운영에서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였다.

자강도에서 창조된 새로운 모범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이 세상에 조선사람이 해내지 못할 일,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비상한 열정과 창조적일본새가 바로 자강도인민들의 혁명적투쟁기풍이였다.

여기에는 선군정치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자신만만한 배짱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자신에게 정든 곳이라고 하시면서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을 추억하며 밤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은듯 온 강계시의 눈부신 락원의

불빛이 장자강반의 야경에 비껴 신비로운 절경을 이루고 독특한 장관을 펼쳐보이고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밑에 겹쌓이는 고난과 시련을 웃으며 넘기고 보다 좋은 래일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창조한 조선인민의 기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는것이 바로 장자강의 불야경이다.

다음은 한드레벌의 지평선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한드레벌의 지평선은 토지정리사업으로 모든 벌들을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선군시대 사회주의땅으로, 주요알곡산지로 전변시키려는 조선로동당의 대자연개조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과정이 담겨져있는 경치이다.

토지정리를 하여 논과 밭을 다 규격포전으로 만들어놓아야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여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줄수 있으며 새 땅을 얻어낼수 있다. 부침땅이 제한되여있는 조선의 경우 알곡증산의 큰 예비는 바로 토지정리에 있다.

조선에서는 토지정리사업이 제일 뒤떨어지고 작업조건이 불리한 강원도를 먼저 추켜세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전국의 토지를 다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토지정리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진펄이 나서면 불도젤을 썰매식배우에 태워서 밀고나가고 언땅이 나서면 언땅을 깍는 기계를 창안도입하는 방법으로 순간도 정지함이 없이 련속 공격전의 방법으로 단계별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갔다.

강원도에 뒤이어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양시 등에서 토지정리가 힘있게 벌어져 토지정리에서는 새로운 전환의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10년, 50년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토지정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논밭을 대규모규격포전으로 만들었으며 물홈들을 메꾸고 물길과 도로들도 정리하여 새 땅을 더 많이 얻어내게 되였다.

한드레씩 물을 퍼서 농사지었다는 뙈기밭들을 밀어내고 큰 규모로 정리된 한드레벌의 풍요한 지평선의 장쾌함은 어제와 오늘의 하늘땅과 같은 차이를 가슴후련히 느끼게 한다.

대홍단의 감자꽃바다에는 조선을 감자명산지로 만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해주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이 비껴있다.

6월말부터 피기 시작한 감자꽃은 7월중순과 말경에는 일망무제한 온 대홍단벌을 하얗게 뒤덮게 된다.

흰파도 설레이며 넘실거리는 감자꽃숲의 아득한 장쾌함과 황홀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래일에 대한 희망과 락관으로 희열을 한껏 느끼게 한다.

대홍단의 감자꽃바다는 선군정치가 펼쳐지고있는속에 북방에 펼쳐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된 황홀한 풍경이라고 할수 있다.

선군 8경은 선군정치의 고귀한 열매이며 선군시대가 낳은 귀중한 창조물이다.

선군 8 경은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인 복무정신, 그리고 조선인민의 열렬한 조국애를 반영하고있는 주체조선의 빛나는 상징이다.

이와 함께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 조국을 하루빨리 부강한 사회주의강성국가로 건설하려는 조선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열렬한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을 반영하고있다.

선군 8 경은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재부이며 조선의 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선군 8 경은 선군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동시에 보다 휘황찬란한 강성국가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선군 8 경에 뒤이어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크나큰 성과들을 보여주는 선군 9 경, 선군 10 경, 선군 11 경, 선군 12 경, 선군 13 경을 비롯하여 새로운 선경들이 계속 나오고있다.

주체 101(2012)년 12 월 12 일 9 시 49 분 46 초, 지구를 박차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 호기가 우주로 날아올랐다.

발사후 9 분 27 초만에 운반로케트 《은하-3》에서 벗어나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한 《광명성-3》호 2 호기에서 내보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률이 우주에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과학기술위성제작

과 발사에 성공한것은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대경사이며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특대사변이였습니다.》

인공지구위성은 해당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정수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발사의 전과정이 전자공학, 기계공학, 조종학, 우주공학, 전자요소공학, 체계공학을 비롯한 현대응용과학기술의 종합체이기때문이다.

위성 하나를 쏴올리자면 금속공업이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수만가지 부속품을 제작해내야 할 기계를 만드는 기계공업이 있어야 한다.

위성은 자동조종체계인것만큼 콤퓨터산업과 프로그람산업이 발전하여야 하며 위성과의 련계를 보장할수 있는 통신기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서는 위성을 제작하여 성과적으로 발사할수 없다.

《광명성-3》호 2 호기는 지구관측위성이다. 《광명성-3》호 2 호기의 근지점고도는 499.7 ㎞이고 원지점고도는 584.18 ㎞이며 주기는 95 분 29 초이며 궤도경사각이 97.4° 인 극궤도위성이다.

지금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 호기는 태양동기극궤도를 따라 비행하고있다.

태양동기극궤도는 인공지구위성의 비행궤도들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궤도의 하나이다. 이 궤도는 가장 널리 리용되면서

도 기술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궤도로서 해당 나라의 우주기술 발전정도를 가늠해볼수 있는 척도의 하나로 되고있다.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주체공업의 위력과 나라의 과학기술적잠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세계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조선의 위상을 힘있게 확증한 력사적장거이다.

인공지구위성발사로 하여 세계는 《광명성》이라는 말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이 말은 오늘 조선을 알게 하고 조선의 국력을 표현하는 하나의 국제공용어처럼 되고있다.

《광명성-3》호 2호기가 날고있는 푸른 하늘, 조선의 국력이 우주에 가닿은 바로 이 현실이야말로 선군시대에 태여난 새로운 선경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하늘에는 위성을, 땅우에는 무릉도원을!

지금 이 시각도 자기의 자리길을 따라 정확히 돌고있는 위성과 더불어, 날에 날마다 자기의 면모를 달리하는 자랑스러운 현실과 더불어 꽃펴날 조선의 미래는 참으로 아름답고 창창한것이다.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경치들, 선경들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강성국가의 미래는 끊임없이 펼쳐질 선군시대의 새로운 경치들, 선경과 함께 더욱더 앞당

겨지게 될것이다.

3) 6.15 통일시대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의 혈통을 이어오면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이러한 조선민족은 외세에 의하여 지난 세기 40년대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사의 장장 큰 불행을 겪어오고 있다.

외세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군사분계선에 의해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칠혈육들이 헤여져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고통을 겪고있다.

강토가 두 동강났을뿐아니라 사회제도도 판판 다른 두개가 생겨나게 되였으며 민족내부의 막대한 인적, 물적재부가 정치군사적대결에 소모되게 되였다. 분렬의 가슴아픈 현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반세기이상 지속됨으로써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번영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게 되였다.

조국통일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숙원으로, 지상의 과업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조선민족은 외세에 의해 국토가 분렬된 그날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미제를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전환을

이룩할수 없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인차 붕괴된다고 떠들었다. 지어 조선이 3일이나 3개월, 3년안에 붕괴된다는 허황한 나발까지 불어댔다.

그러다가 조선이 고난을 이겨내고 군력에 기초한 국력을 높이 떨치자 붕괴설을 수정하여 연착륙론을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연착륙론은 조선과 적당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서히 무너뜨리기 위한 교활한 계책이였다.

조선이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들고 나가게 되자 미제와 그 련합세력은 조선에 대한 붕괴전략의 패배를 인정하고 조선과 관계를 가지는데로 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대세의 흐름은 남조선의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집권상층들까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집권유지의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였으며 결국 남조선집권자로 하여금 평양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주체 89(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사이에 평양에서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55년만에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게 되였다.

세계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여 김대중을 영접하시고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는 모습을 특기할 사변, 20세기의 기적으로 대서특필하여 보도하였다.

지어 미국의 CNN 방송과 일본의 NHK 방송 등 많은 방송

들은 정기방송까지 중단하면서 이 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취재하기 위하여 서울의 한 기자쎈터에만도 이른 새벽부터 289개(그중 외신 173개)의 언론기관들에서 1 275명(그중 외신 503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붐비였다고 한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적인 관심속에 평양시내 60만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김대중과 함께 숙소까지 동행하시였으며 숙소에서 그와 담화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대중과의 단독회담에서 7천만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와 통일방도에 관한 문제,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과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방문단교환문제, 북남대화문제를 비롯한 조국통일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시고 그 해결에로 회담을 이끌어가시였다.

이렇게 되여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핵으로 하는 5개항목으로 된 북남공동선언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

과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북남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한 자주통일선언이다. 또한 북과 남이 대결과 전쟁위협을 끝장내고 동족사이의 신뢰를 도모하고 화합을 이룩해나가게 한 통일지향선언이다.

6. 15 북남공동선언에는 오직 자주만이 민족의 생명이며 살길이라는 철의 진리가 담겨져있으며 그 어떤 물리적장벽도 세월의 흐름도 결코 갈라놓을수 없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겨레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이와 함께 민족분렬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가시고 온 겨레가 하나로 뭉치자는 절절한 념원도 담겨져있다.

6. 15 북남공동선언이 나오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민족사적사변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하와이동서방연구쎈터 수석연구원도 자기의 글에서 《6.15 공동선언은 바로 선군정치의 산물이다. 북의 선군총대의 위세로 평양상봉이 마련된것이다. 군력으로 밑받침된 북의 자주통일로선이 있기에 조선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할것을 확약한 력사적인 자주통일선언이 나오게 되였다.》고 썼다.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남조선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고 신뢰하며 따르는것이 하나의 주류를 이루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와 결단력에 의하여 불과 옹근 3일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통일의 리정표가 마련되고 이를 계기로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접하게 된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한결같이 그이를 《장군중의 장군》, 《바다같이 열린 성격을 소유하신분》, 《판단력이 뛰여나신분》으로 경탄하면서 끝없이 흠모하였다.

남조선의 《제 1 라지오》 방송은 《북과 남은 전세계가 주목하고있는 가운데 공동선언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주의 첫 단계를 훌륭히 장식하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력사적인 합의를 그처럼 빠른 속도로 이끌어낸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저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도하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쎈터가 995명의 학생들을 대상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의 90%이상인 900 여명이 《조국통일을 이룰 대망의 령도자는 **김정일**장군님》이시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지난날 남조선인민들은 공미숭미에 물젖어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속에서는 미제가 결코 《해방자》, 《원조자》가 아니라 침략자, 략탈자이며 민족에게 온갖 고통과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우는 화근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미국이 동맹자, 우방, 벗도 아니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주되는 장애물이라는것을 인식한 남조선인민들은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찾자!》라는 구호밑에 반미자주

화투쟁을 격렬하게 벌리고있다.

6.15 북남공동선언이 효력을 발생하여 북남관계에서는 민족분렬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화해와 협력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심화발전되였다.

주체 89(2000)년 7 월 29 일부터 주체 92(2003)년 4 월까지사이에 미국과 반동보수세력들의 방해책동속에서도 10 여차의 북남상급회담과 3 차의 특사방문 및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4 차의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19 차의 실무접촉과 분과회의가 열렸다.

북남관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과정에 민간급에서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이 더욱 활성화되였다.

주체 91(2002)년 가을 부산에서 진행된 제 14 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주체 92(2003)년 여름 대구에서 진행된 제 22 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여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주체 95(2006)년 12 월 까타르의 도하에서 진행된 제 15 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장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주체 92(2003)년 6 월 14 일에는 6. 15 북남공동선언 3 돐을 맞으며 북남동서해선철도련결행사가 진행되여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평양에서는 주체 96(2007)년 10 월 또다시 북남수뇌상봉

이 마련되였다.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그것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은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였다.

미국의 부쉬정권은 좋게 발전하고있던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고 조선을 무력으로 전복하기 위한 새 전쟁책동에 광분하였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여기에 남조선의 극우익세력이 적극 추종해나섰다.

그러나 선군으로 다져진 강위력한 힘이 있었기에 조선민족은 미제와 남조선극우익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며 통일을 위한 거세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튼튼한 군사력에 의거한 조선의 강경한 립장에 미국은 하는수 없이 공화국을 인정하고 핵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주체 94(2005)년의 9.19 공동성명과 주체 96(2007)년의 2. 13합의문에 도장을 찍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속에서 10월 4일에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10. 4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선통일의 리정표로 확인하고 그를 폭넓게 구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밝혀져있었다.

구체적으로 북남사이의 군사적신뢰구축, 평화보장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방안,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폭넓은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 《서해평화협력지대》설치제안,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북남응원단이 서해선렬차를 리용하

여 참가하는 문제, 백두산관광실시와 같은 문제들을 비롯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이 천명되여있었다.

10. 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되였다.

6. 15공동선언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10. 4선언, 이것은 다름아닌 선군정치가 안아온 결실이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은 선군정치에 대해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말로써 지킬수 없는것이 민족의 존엄이고 구걸로는 이룰수 없는것이 겨레의 자주적통일이라는것이 조선민족이 뼈에 사무치게 깨닫고있는 고귀한 진리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오는 선군정치에 전체 조선민족이 공감하고 그를 받들고있다.

남조선의 21세기 정치학연구모임 교수인 진철은 자기의 글 《온 겨레는 선군복에 산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예전에는 미처 모른채 보답없이 받기만 한 선군복, 열백번 생각해도 고맙고 천만금을 바쳐도 갚을수 없는 **김정일**장군의 은혜 정녕 하늘에 닿는다.

세상에 총대를 처음으로 행운의 보검으로 만드신 선군의 태양 **김정일**장군, 장군을 모셔 겨레가 누리는 선군복이야말로 영원무궁할 **김정일**복이다.

목숨으로 지키면 더욱 강해지고 정성을 다하면 날로 커지

며 진심으로 따르면 보다 따사로워지는 선군복.

고마운 선군복에 충의로 보답하자!

민족의 특전 선군에 겨레의 삶과 미래가 있다.

복받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를 안고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를 일심으로 받들자!》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이러한 경이적인 사변들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세계정치구도를 주름잡아나가는 선군의 위력에 의하여 마련된 위대한 승리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북남관계에 다시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6. 15 의 리념을 구현하는 로정에서도 적지 않은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고 동족대결과 반통일책동에 매달리였으며 온갖 도발행위를 일삼으며 조선반도에 침략전쟁의 불길을 몰아왔다.

그러나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이룩되는 날까지 6. 15 의 리념과 의지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는 달리될수 없는 민족공동의 지향이고 념원이며 선군의 총대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는 온 겨레의 통일지향이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는 선군의 기치와 그에 의하여 마련된 6. 15 의 리념

이 있기에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과 반통일보수패당의 책동을 짓부시고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려명을 기어이 안아올것이다.

4)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세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업입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숨돌릴틈을 주지 말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체 94(2005)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의 수도 까라까스에서 진행된 21세기 반제자주위업에 관한 세계대회에서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가 한 보고의 구절이다.

대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비롯하여 40여개의 나라와 2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대표단과 대표들, 베네수엘라의 정부, 정당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의 불패의 보루로 거연히 솟아 세인의 각광을 받고있는 주체조선의 위용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이며 반제적인 인민들에게 큰 고무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선군의 길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나라

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부강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다격을 주고 반제자주력량을 고무하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

대회에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이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으며 21세기 반제자주위업에 관한 까라까스선언이 발표되였다.

현시기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와 썩어빠진 세계화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주와 진보의 길을 따라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수력, 원유, 천연가스, 석탄으로부터 지열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동력자원과 금속 및 비금속광물자원을 가지고있으며 산림자원과 어업자원도 풍부하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은 지난날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워왔으며 그 어느 지역보다 미제의 침략과 략탈, 간섭책동이 심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변혁시도들이 국내반동세력과 미제의 직접적무력간섭에 의하여 즉시에

진압당하였다.

미제의 지배주의적책동에 의하여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은 난관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원조와 빚청산,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반테로투쟁과 비핵화의 간판밑에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지배는 더욱 강화되였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반제자주의 길만이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절감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미국의 침략적이고 내정간섭적인 라틴아메리카정책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주체 96(2007)년 11 월에 이베로-아메리카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지배주의적책동에 맞서 지역나라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서로 굳게 단결할데 대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꾸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띠나 등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확산,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책동에 반기를 들고있으며 경제무역분야에서 미국을 배격하고있다.

주체 97(2008)년 1 월에 진행된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대안(알바)성원국 수뇌자회의에서는 알바은행을 정식 창설하였다.

알바은행이 창철되게 된 목적은 알바성원국들이 경제무역

활동에서 세계은행 및 서방금융기구들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한데 있다.

이에 앞서 주체 96(2007)년에 에네르기에 관한 남아메리카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대륙의 일체화를 실현하는것을 최종목적으로 한 경제협조기구인 남아메리카공동체를 남아메리카동맹으로 개편, 확대하기로 하고 그 상설서기국을 정식 내왔다. 그리고 에네르기분야에서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에네르기리사회를 조직할데 대해서 협의하였다.

주체 96(2007)년 12 월에는 남아메리카의 7 개 나라들이 남은행창설문건에 서명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통합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여기에서 가장 의의있고 력사적인 사변은 주체 100(2011)년 12 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과 카나다를 배제하고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망라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국가공동체가 탄생한것이였다.

지금껏 미국은 1948 년에 창설된 아메리카국가기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배적지위를 유지하고있었다. 미국은 이 기구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모든 활동을 좌우지하였다.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꾸바와 같은 나라들에 대하여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등 부당한 태도와 조치를 취해왔다.

성원국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멋대로 놀아대는 미국의 처사에 많은 나라들이 불만을 표시하군 하였다.

이러한 민심을 타고 지역에서는 미국을 배제하고 평등이 보장되는 새 기구창설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였으며 이 과정에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국가공동체가 창설된것이다.

력사와 문화에서 공통점이 많은 나라들로 창설된 이 기구가 자기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킬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실지로 미국의 반꾸바압살책동을 지역나라들이 단결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규탄하며 꾸바에 대한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주체 102(2013)년 1월 60여개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부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제1차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국가공동체-유럽동맹수뇌자회의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봉쇄책동에 맞서 싸우는 꾸바인민에게 전적인 련대성이 표시되였다.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한 이 수뇌자회의는 력사적으로 자기의 주인인 미국의 리익에 복종하여온 부패한 지역기구인 아메리카국가기구의 종말을 의미하는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볼리비아신문 《라 라쏜》은 아메리카국가기구라는 명칭을 단 배가 침몰되는 만화를 받쳐 실은 글에서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에서의 주요문제들은 새로 창설된 공동체가 풀어나갈것이라고 전하였다.

메히꼬의 한 분석가는 새 공동체의 탄생은 세계와 대륙에

서 일어나고있는 변화의 일환으로 된다, 그 변화란 미국의 지휘봉이 이제 와서는 더이상 맥을 추지 못하게 되고 지역뿔럭들의 장성이 새로운 세계적균형을 이루고있다는것이다라고 평하였다.

라틴아메리카는 더이상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패권주의를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을 확고히 고수하고 지역의 단합과 안정, 평화를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이 오늘 라틴아메리카의 장엄한 현실이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날로 더욱 강화되는 단결과 협조, 일체화움직임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침략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의 전략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아프리카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아프리카동맹을 창설하고 그것을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여나가고있다. 아프리카동맹의 창설은 아프리카나라들의 단결과 협조, 부흥과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아프리카나라들의 일치한 견해는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대륙의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동맹과 지역경제협조기구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주체 102(2013)년 1월 27일과 28일에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국제적관심과 기대속에 제20차 아프리카동맹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개막연설에서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수뇌자회의가 아프리카통일기구(아프리카동맹의 전신)창립 50돐을 맞이하게 되는 해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성원국들이 정치적의지를 발휘하여 여러 나라들의 위기를 자체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시기 아프리카동맹은 동맹강화에 힘을 넣으면서 대륙의 통일과 발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동맹은 자체의 힘으로 지역의 분쟁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대륙개발에서 서방《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도 강화되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대륙의 발전전망은 아프리카인민들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대륙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힘쓰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자기들의 존엄과 리익을 지켜나가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변화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정치를 주도하며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발전하는것만이 인류가 나아갈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세계경제의 다극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것도 최근년간

자주의 길로 나가는 국제정세발전에서 괄목할만 한 일이다.

주체 102(2013)년 3월 26일과 27일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진행된 브릭스수뇌자회의에서는 세계총생산액과 인구, 무역액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로 구성된 브릭스개발은행창설문제가 토의되였다.

개발은행은 브릭스성원국들사이의 무역결제에서 민족화폐사용문제와 차관제공문제 등을 주관한다고 한다. 이것은 딸라에 의한 의존을 줄이고 민족화페리용을 적극 장려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것은 로씨야외무성의 한 전문가가 《세계는 지금 딸라를 대신할 화폐를 찾고있다. 브릭스성원국들이 개발은행을 창설하는것도 그런 경향의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이 개발은행은 미국 그리고 딸라에 도전하는것이다.》라고 말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딸라주머니를 내흔들며 으시대는 미국에 타격을 안기는 조치로 되고있다.

현시기 미제의 지배주의적책동, 신식민주의적간섭책동은 위기에 처해있다.

반제자주의 흐름이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자주와 평화,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파탄되고있으며 세계는 자주화의

방향으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으로, 생활적요구로 되고 있는 반제자주의 앞길은 선군정치가 밝혀주고있다.

현시기 선군정치는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세계정치계에서는 선군은 현시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한 시대어이며 조선의 선군정치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정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배우려는 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바다로 도도히 굽이쳐가는 대하의 흐름을 멈춰세울수 없듯이 선군정치의 견인력은 절대로 막을수 없다.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이 격렬해질수록 더욱 위력을 발휘하는것이 선군정치이고 시대가 전진할수록 더욱 군세여지는것이 선군을 따르려는 진보적인류의 지향이다.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선군정치의 위력앞에서 공포에 떨고있다. 미국의 VOA 방송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가 발산하는 힘의 거대한 폭과 무한대의 깊이를 가늠할수도 잴수도 없다는데 미국의 비극이 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강권과 전횡, 패권주의를 짓부시고 자주와 존엄, 진리와 정의를 수호할수 있는 길은 오직 선군에 있다.

선군의 기치아래 진보적인류는 우리의 행성에 자주의 새 세계, 정의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인류의 미래는 선군에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군사는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섭니다.》

김 정 일

5. 선군의 길은 대를 이어 끗끗이

지금까지 선군혁명원리와 선군혁명원칙, 선군정치에 대하여 보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선군사상의 기본체계와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마칠수는 없다. 그것은 선군의 기치높이 오늘도 끄떡없이 전진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말하자면 무엇인가 부족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한다.

조선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지원》의 사상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혁명의 계승은 혈통의 계승, 사상의 계승에 있다. 《지원》의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의하여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였다.

《지원》의 사상을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넘겨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인미답의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쳐오

시였다.

그 길에서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못가본 선군장정의 길을 걸어오시였다.

이 길에서 한차례의 세계대전과 맞먹는 제국주의와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어오신 선군의 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대를 이어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계주봉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기 위하여 선군의 한길로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바로 그 선군길 천만리에 아로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있어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존엄과 위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칠수 있었다.

그러면 그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1) 세계를 진동시킨 첫 공개연설

주체 101(2012)년 4월 15일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평양에 집중되였다.

바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하시여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라는 첫 공개연설을 하시였기때문이였다.

일반적으로 령도자의 첫 공개연설은 그의 정치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첫 공개연설을 통하여 령도자의 로선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특징지을수 있다.

하기에 이날 세계의 수많은 통신, 방송들은 평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의 파장을 조선에 맞추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에 하신 연설을 통하여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며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명철하고도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령도,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반도는 지정학적위치로 놓고 볼 때 대륙과 해양이 교차하는 요충지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조선은 지난날 주변을

둘러싼 강국들의 각축전무대로 갖은 수난을 숙명처럼 겪어왔다.

음풍영월하는 봉건통치배들과 사대의 어지러운 바람으로 하여 쇠진해질대로 쇠진해진 조선에 눈독을 들인 침략자들이 그칠새없이 달려들었다.

날강도 미제의 《셔먼》호가 대동강에 수장된지 10 년도 못되여 간악한 일제의 《운양》호가 조선침략의 합법적리유를 만들어낼 야망밑에 계획적인 무장도발을 걸어왔다.

이 사건을 구실로 일제는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지만 그것을 격퇴할만한 구실이 없었던 조선봉건정부는 1876 년 2 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이라고도 함)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때부터 반식민지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어가 온갖 굴욕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도 변변히 항변한마디 하지 못하였던 조선은 그후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나라가 망국의 비운을 들쓰고 만백성이 하늘땅을 원망하며 곡성을 터뜨렸지만 일제의 간악한 날강도행위를 저지시킬만한 힘이 없었다.

지정학적위치가 한 나라, 한 민족의 불우한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조건일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선의 운명은 침략과 략탈을 피할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선군령장들이신 위대한 수령님

과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망국의 치욕과 민족수난의 비극을 강요당해야 했던 조선의 력사에는 영원한 종지부가 찍혀졌다.

어제날의 약소국으로부터 오늘은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결코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을 강화하여오신 결과에 이루어진 필연이다.

조선혁명의 행로에는 강대한 제국주의자들과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대결전도 있었고 부강조국의 만년터전을 다지는 대건설전투도 있었다. 그 나날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제일 먼저 추켜들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앞장에서 견결히 수호해온것은 바로 인민군대였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발전의 첫 걸음을 뗀 인민군대는 오늘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전률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났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겼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여있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조선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승리의 영원한 표대이다. 강한 자주적대, 민족자존의 정신력에 의하여 조국의 존엄이 빛나고 강성번영이 이룩된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보검이다. 선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할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사회주의는 조선인민의 리상이다.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고 강성번영시켜나가는데 조선인민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근본담보는 다름아닌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병패여도산》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군대가 패하면 산사태같이 무너진다는 뜻, 다시말하여 나라도 민족도 주권도 화목도 다 무너져버린다는 뜻이다.

결국 군대를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 부흥번영의 길이 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야 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 없는것이 인민군대의 혁명적본태이며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투쟁방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슬하에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80년력사에 대한 긍지높은 총화가 담겨져 있었다.

또한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빛발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에 하신 연설은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나가는 길을 혁명의 변함없는 좌표, 투쟁의 영원한 전략으로 그어주신 력사적인 연설이였다. 그것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사를 빛내여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선언이였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전투적호소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그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한길로 이끌고있다.

하늘의 태양은 빛과 열로 만물을 키운다. 혁명을 이끄는 령도자는 사상리론으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위대한 철학과 위대한 사상속에 위인의 높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위인의 높이는 철학적예지의 높이이며 사상의 높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높이는 뛰여난 사상리론적예지에 있으며 그이의 위인상에서 첫째가는것은 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 시대의 향도자이시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인민을 선군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신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 101(2012)년 한해동안에 발표하신 로작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

야 한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시대와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조선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현실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 비상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위인적풍모와 자질을 지니시고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시대를 향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백전백승의 상징이시다.

지금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굳게 간직되여있다.

탁월한 사상리론으로 천만군민을 선군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백두령장이 계시기에 조선인민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2)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중동의 한 문필가는 《미국은 오늘의 프로크루스테스이다. 미국은 자기 식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재여보고 그와 어긋날 때에는 가차없이 징벌한다. 미국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사정이 없다.》라고

썼다.

고대그리스신화에 의하면 지나가는 길손들을 악착한 방법으로 해치는 악한이 있었는데 그의 별명은 프로크루스테스 즉 잡아늘구는 놈, 쇠침대도적이였다. 이 자는 자기 집앞을 키가 작은 사람이 지나가면 긴침대에 끌고가 몸을 침대길이만큼 늘구어 죽이고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침대에 끌고가 침대밖으로 나온 발을 잘라 죽이였다.

이 신화적인 이야기로부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란 말은 자기 의사를 남에게 강권으로 내려먹이는 행위, 전혀 맞지 않는 기준과 요구를 우격다짐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횡포한 행위를 비유하는 말로 통용되고있다.

현시기에도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이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에 대하여 강권과 전횡, 패권주의를 일삼는 세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정의의 총본산이며 지구의 악성종양인 미국이다.

미국은 저들이 《전인류의 공통적인 희망을 대표》한다고 떠들면서 미국의 《지도력과 결심》에 의하여 세계가 변화된다고 광고하고있다. 군사력을 마구 휘둘러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일극세계화책동은 《강대국의 자국중심주의》라는 반동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있다. 이것은 세계우에 군림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미국의 오만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여론도 이에 대하여 경악을 표시하였다.

《극도로 오만한 일방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미국의 전횡과 독단으로 현세계에는 중세기와 같은 무질서가 조성되고 국제법은 완전히 무시되고있다.》, 《미국이 세계가 노예사회로 되돌아가게 하고 저들은 모든것의 우에 있는 노예주로 되려하고있다.》고 폭로규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런 포악무도한 미국은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이다.

령도자는 드센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력한 국력을 마련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의를 말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용서도 모르는 무비의 담력, 세계의 진보와 평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조선의 천만군민은 적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수호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와 무도영웅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우리

의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고 명령하시였다.

장재도와 무도, 이 섬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조국의 방선에 마음을 이어놓고 전호와 함께 산다고 하는 조선인민이였지만 병사들이 서있는 초소에 장재도, 무도라는 이름이 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은 몇이 안되였다.

장재도와 무도는 주체 99(2010)년 11월 적들이 공화국령해에 포사격을 감행한 연평도가 눈앞에 있는 전쟁과 평화의 대결장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서해상에 위치하고있는 연평도는 면적이 6.8㎢, 둘레길이가 약 18km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섬이다. 이 수역은 예로부터 물고기의 종류와 어획량에 있어서 조선서해 그 어느 곳보다 풍요한 어장으로 유명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러워하던 곳이였다.

이러한 삶의 터전이 남조선호전광들에 의하여 해병대와 포무력이 집중배치된 북침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연평도주변해역에서 불질을 해댔다가 조선인민군의 물리적대응타격에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장재도와 무도는 코앞에 적들이 도사리고있으면서 호시탐탐 도발의 기회만을 노리는 곳, 세계의 초점이 집중된 곳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최대의 열점지역에 위치하고있는 장재도와 무도를 찾으시여 인민군군인들에게

조국결사수호의 투철한 사상과 불굴의 신념을 가슴깊이 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으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던 주체 102(2013)년 3월 7일에 또다시 장재도와 무도를 찾아가시였다.

미제의 책동은 2013년에 들어와 로골화되였다. 이 시기 조선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3월 1일부터 북침을 가상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3월 11일부터는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려놓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은 조선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예비전쟁, 북침핵전쟁시험이였다.

남조선괴뢰국방부가 밝힌데 의하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행되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해외주둔미군 1만여명을 포함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무력이,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에는 미제침략군 3 500여명과 괴뢰군 군단급이상병력 1만여명이 투입되게 되여있었다. 여기에는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와 《B-52》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최신핵전쟁장비들이 동원되였다. 그리고 영국,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지난 조선전쟁에 가담하였던 미국의 추종국가무력까지 참가하

였다.

옹근 한개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대규모의 무력과 핵공격수단들이 투입된 이번 연습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였으며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원쑤들이 칼을 휘두르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짓뭉개버리며 핵무기로 위협하면 보다 더 위력한 자기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풍지박산내는것은 조선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원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군인들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올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댄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의 조국통일대진군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의 광란적인 침략전쟁소동이 최절정에 치닿고있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

던 3월 11일 적들이 도사리고있는 백령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섬의 지형지물과 화력기재들의 배치상태,군인들의 생활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속담에 불을 좋아하는 놈 불에 타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불에 타죽으려고 쩍하면 예민한 열점지역에서 불장난질을 해대고있는 적들을 명령만 내리면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인민군군인들의 가슴속에 무자비한 징벌의 의지를 깊이 심어주었으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월 한달기간에만도 침략전쟁의 불뭉치를 들고 달려드는 적들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선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대연평도, 백령도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초정밀무인타격기의 대상물타격과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싸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케트사격훈련, 대련합부대들과 해군련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은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여러 군부대들에도 어리여있다.

주체 102(2013)년 3월 29일 0시 30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제가 방대한 전략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략로케트군의 화력타격계획을 검토하시고 최종비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미제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제는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미제에 의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엄중한 정세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중대한 결심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력사의 페지를 여는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의 천만군민은 빈말을 모른다. 한다면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것이 바로 선군조선의 본때이다.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모든 군종, 병종부대들과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종수표하신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하였다.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성전을 벌려 민족의 최대숙원을 풀 철석의 의지로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미제가 핵무기를 휘드르며 덤벼들면 조선은 다종화된 자기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것이다. 누르면 발사하게 되여있고 퍼부으면 첫 순간타격에 모든것이 날아나고 씨도없이 재가루로 불타버리게 되여있다.

그렇게 되면 미제침략군기지들은 한순간에 초토화될것이며 그것은 아메리카제국의 장송곡을 울리게 될것이다.

조선의 천만군민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선군의 위력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것이다.

력사의 그날을 새기며 장재도와 무도는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총대로 개척된 조선혁명은 총대로 빛나게 완성될것이며 조선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것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이시다.

오늘 미국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일찌기 이딸리아의 무쏠리니는 《약육강식은 인류생존의 근본법칙》이라고 하면서 침략교리를 정당화하였다. 영국의 쳐칠은 《세계의 모든 력사는 강대한 민족은 언제나 정의롭지 못하고 정의로운 민족은 언제나 강대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떠벌였다. 이 말은 힘으로 약소국가들을 짓뭉개버리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이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립증해주었다.

나라가 크고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하여 저지르는 불의가 정의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불의가 일시적이며 꺼지는 불길이라면 정의는 영원하며 타오르는 불길이다.

불의는 력사의 반동들의것이며 정의는 인민대중의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 초고압강경으로 나가며 무분별한 도발에 강한 물리적힘으로 대응할 때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기에 선군의 업적이 대를 이어 빛나고 조선인민군은 한다면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서의 자기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가 있기에 조선은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위대한 선군의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이다.

3) 단숨에

최근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함축된 하나의 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시대를 진동시키고있다.

단숨에!

조선의 그 어디에 가나 자주 보고 들을수 있는 말이다. 기발과도 같은 글발이며 불길과도 같은 웨침이다.

원래 이 말은 병사의 용어이며 전선의 언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군군인들은 단숨에라는 말을 사랑한다.

걸음마다 그 말을 울리며 펄펄 나는 용맹을 키우고 멸적의

투지를 키운다. 산을 넘어도 단숨에, 강을 건너도 단숨에, 위훈을 세워도, 승리를 떨쳐도 번개같이 불이 번쩍 단숨에 하는것이 인민군군인들의 기질이며 성격이다.

강성국가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인민군군인들이 추켜든 이 기치에 세계의 눈앞에 펼쳐진 조선의 본때가 비껴있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위용떨치는 선군시대와 함께 단숨에라는 말은 조국수호의 전방에서뿐아니라 창조와 건설의 전선들에서 인민군군인들의 슬기와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상징하는 말로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있다.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공격정신이 대비약의 불길로 타래쳐 오르고있는것이 조선의 벅찬 현실이다.

평양의 중심부에는 천리마동상이 있다. 한달음에 천리를 난다는 그 기적의 준마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도 그 나래를 더 활짝 펼치고있다.

다계단으로 사변들이 계속 터지고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조선의 진군속도는 최후승리가 가까와올수록 더욱더 빨라지고있다.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기백과 발걸음새, 전진속도가 이 섬광과도 같은 단숨에의 말속에 다 있다.

성공도 단숨에, 속도도 단숨에!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총대를 앞세우고 리상실현의 지름길을 달리는 조선의 억센 모습이다.

조선혁명은 언제나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의 역풍을 맞받아 물리치며 전진하여왔다. 언제한번 순풍에 돛을 달고 전

진한적이 없는것이 바로 조선혁명이다.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무수히 넘고 헤쳐야 했던 최근년간 조선인민은 공화국을 집어삼키려고 발광하는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현시기 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세계에서 앞서나가려고 서로들 경쟁하며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시대는 시간경쟁, 속도경쟁의 시대라고 할수도 있다.

지금 조선인민앞에는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일격에 분쇄하는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와 함께 경제강국의 령마루를 단숨에 점령하는것이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승리우에 더 큰 승리, 수호의 땅에 단번도약의 기적, 단번승리의 창조물을 수풀처럼 일떠세우는것으로써 력사의 역풍을 이겨내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것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가 지닌 가장 중대한 임무이다.

조선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발전된 나라들을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따라 앞서겠다는 배짱을 가지고 포부와 리상을 높이, 크게 세우고 말그대로 본보기가 될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벌려나가고있다.

시간에 얽매인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통이 크고 대담하

며 원대한 목표를 기준으로 전진의 시간표를 짜고있으며 시대의 요구를 기준으로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고 창조하고 또창조해나가고있다.

단숨에의 공격정신은 결전의 마당에서 나온것도 아니고 전후의 페허에서 나온것도 아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조국번영의 진격로에서 인민군군인들의 단숨에의 공격정신은 고난속에서 더 억세여지고 용맹해지며 담대해진 조선민족의 기질, 선군조선의 본때를 보여주고있다.

단숨에의 공격정신이 발휘되는 속에 주체 101(2012)년 조선에서는 새라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였으며 이 땅에는 통채로 박차를 가한 준마의 기상이 차넘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내무군장병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단숨에의 기상으로 주체 101(2012)년에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사변들, 천만군민을 흥분시키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 력사적사변들에 대하여 더듬어보기로 하자.

이해에 조선에는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혹심한 자연재해가 련이어 들이닥치였다.

그렇지만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견인불발의 의지와 백절불굴의 투쟁으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희천발전소가 준공하였다.

높고 험한 랑림산줄기에 펼쳐진 대인공호수들과 북방의 산악들을 두팔 벌려 그러안고 틀지게 들어앉은 웅장한 언제들, 해발고가 근 600m나 되는 산정에서 강철폭포마냥 장쾌하게 흘러내린 압력철관로들과 무수히 뻗어간 송전선들… 나라의 전력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희천발전소건설은 방대한 건설공사였다.

하기에 주체 99(2010)년 12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았던 많은 외국의 벗들의 질문은 하나같았다.

과연 2012년까지 발전소건설을 끝낼수 있는가? 태고의 험산준령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공사전량의 60%계선을 돌파한 성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도 그들이 곱씹던 이 물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인민군군인들은 《단숨에》라는 이 통쾌한 글발로 대신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희천발전소건설에서 하루를 10년, 100년 맞잡이로 달리고 또 달리였다. 병사의 행군길은 사람이 한생걸을 걸음을 다 걷는다고 한다. 희천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은 발전소건설장에서 그 걸음을 다 걸었다고 례사롭게 말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남들이 백년천년동안 하는 일을 단숨에 해놓겠다는 그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결사적으로 하루하루를 싸웠다.

그들속에는 손가락이 철판에 닿기만 해도 쩍쩍 들어붙는 모진 강추위속에서도 시간, 시간하면서 취사원들이 입에 넣어주는 밥덩어리를 씹으며 착암기와 용접면을 놓지 않은 병사들도 있었다.

남자들도 저어하는 아슬한 언제우에서 일분일초도 아까와 마른밥으로 끼니를 굼때며 유압식굴착기의 조종간을 놓지 않은 처녀병사도 있었다.

발전소건설을 시작할 당시에는 생소한것이 많았던 병사들, 착암기다루는 법, 권양기운전조작에 대한 강습을 받는것으로부터 첫 전투를 시작했다.

그러던 병사들이 오늘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최고발명가상과 메달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발명증서, 창의고안증들을 수여받았다.

총을 다루던 병사들이였건만 발전소건설을 전문으로 해온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언제콩크리트치기전투를 좌우상하로 동시에 전개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사람들을 놀래우기도 하였다.

대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혼합물바가지》로, 유압식굴착기바가지를 《혼합물다짐기》로 활용하는 인민군대식 일당백공법을 창안도입하기도 하였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천년만년을 담보하는 최상의것만을 인정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돌파하는 피타는 탐구정신, 창조정신을 발휘하였다.

그들의 탐구정신, 창조정신은 룡림언제언덕에 새겨졌던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구호가 보여주고 있다.

조국의 백년천년을 단숨에 앞당겨오는 인민군군인들이 있어 선군시대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 일떠설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단숨에의 공격정신은 비단 인민군군인들에게서만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단숨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조선인민모두의 공격방식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동해의 날바다를 길들이며 단천항이 거창하게 일떠섰다.

그리고 곽산간석지 2계단건설을 끝냄으로써 조국의 대지가 넓어지게 되였으며 남포-평양바다물수송관건설도 완공하였다.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웠으며 기간공업부문의 중요생산기지들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훌륭히 개건하였다.

주체 101(2012)년에 평양시의 가는 곳마다에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솟아올라 수도의 모습이 천지개벽되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적지향, 새세기의 요구에 맞는 창전거리가 보란듯이 일떠섰다. 옹근 하나의 거리에 맞먹는 수천세대에 달하는 고층 및 초고층살림집들과 인민극장, 지상과 지하에 립체적으로 배치된 그쯘한 봉사기지들이 새로 준공되였다. 그리하여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새집들이경사를 맞고 문화정서생활에서 최상의 편의를 보장받을수 있게 되였다.

곱등어관과 물놀이장, 유희장, 미니골프장으로 되여있는 릉라인민유원지가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본보기적창조물로 자랑스럽게 일떠섰다.

김형직사범대학이 훌륭히 개건보수되고 창전소학교, 경상유치원과 경상탁아소가 손색없이 꾸려져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남부럽지 않은 사랑의 배움터에서 지식탐구의 나래를 더활짝 펼칠수 있게 되였다.

현대적인 체육 및 의료봉사시설들, 상업봉사기지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손색없이 준공되여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태권도성지중심과 양각도체육촌,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과 같은 체육활동의 거점들이 거창한 규모로 건설되여 나라의 체육발전을 보다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되였다.

류경원과 제1목욕탕이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며 본보기적창조물들로 일떠섰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쎈터를 비롯한

대중의료봉사기지들도 현대적으로 건설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만수교고기상점과 청량음료점, 보통강수산물상점이 희한하게 일떠서고 방대한 부지면적에 평양민속공원이 펼쳐졌으며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을 비롯한 이름난 유원지와 공원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였다.

희한한 새 거리와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교육 및 체육문화시설들, 유원지와 공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과 조국관, 미래관이 구현된 사랑의 결정체이며 사회주의조선의 만년재부이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양시에 수풀처럼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번개같은 공격정신으로 조국땅우에 무겁게 실어놓는 거창한 기적의 창조물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단숨에라는 말은 강성국가건설방식으로 되였다.

1년이라는 기간은 력사에서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한해동안에 조국력사에 찬연히 빛날 자욱을 남기였으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단숨에라는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비약과 혁신에로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의 벅찬 현실을 엿볼수 있다. 이 말은 끝없이 부강번영할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확신할수 있게 한다.

단숨에, 이것이 조선이 추켜들고있는 대고조의 기발이라면 그 기발의 기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강성국가에로 나가는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며 조선의 전진속도는 최대속도로 될것이다.

단숨에!

이 말은 최대속도로 비약하고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히 빛나는 상징으로 될것이다.

맺 는 말

선군사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고귀한 진리가 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번영과 발전은 총대, 군력에 정비례한다는것이다.

총대, 군력이 강하면 국력이 강하여 나라와 민족의 위상과 존엄, 부강번영이 담보되지만 군력이 약하면 국력이 피폐해지고 나라와 민족의 명맥마저 끊기우게 된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력사와 현실을 파헤쳐보아도 그 운명, 흥망성쇠는 총대, 군력과 련관되여있다.

총대의 힘이자 곧 나라의 자주권이고 인민의 존엄이며 민족의 부흥번영이다. 총대가 강해야 국력도 강하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도 솟구쳐오르며 민족의 찬란한 미래도 담보된다.

정의의 힘, 강위력한 군사력이 있을 때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될수 있고 번영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조선의 현실이다.

선군사상은 현시기 세계를 비치고있다. 21세기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을 추동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의 진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선군사상은 시대발전을 선도하고 인류의 미래를 환히 밝혀주고있다.

주체 102(2013)년 4월 11일 로씨야신문 《자브뜨라》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기신다》라는 제목의 론설에서 다

음과 같이 평하였다.

《조선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인민이 선택한 신성불가침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선군의 조국, 견인불발의 나라, 꺾이지 않는 영웅의 나라이다. 적들의 폭탄과 비방중상, 그 어떤 위협과 무자비한 선전공세속에서도 자기의 놀라운 문명과 붉은 세계, 값비싼 결정체를 건설하였으며 이것은 수천의 흐름이 되여 다른 대륙들에로 전파되고있다. 조선은 대국들과 맞서 싸우고있다. 조선은 인류에게 옳바른 선택의 길을 가르쳐주고있다.》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길, 진정 이 길은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륭성번영을 이룩하는 참된 길이다.

자주와 번영의 문은 선군으로

집필: 김창경

냇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인쇄: 주체 103(2014)년 2 월 15 일

발행: 주체 103(2014)년 2 월 25 일

ㄱ-35166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3(2014)년